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목 차

I. 서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2. 선행연구 현황	6
3. 연구 방법	10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0
나. 참여대학	11
II. 대학 교양기초교육 체계와 구성	12
1. 대학 현황	12
2. 교양기초교육 구조와 체계	14
가.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14
나.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구성원	16
다.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예산	20
라.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전임교원의 교육 분야	22
마.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강좌 수	23
3. 대학 교육과정 및 교양기초교육과정 체계	24
가. 대학 교육과정 체계와 학점 구성	24
나.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및 비율	25
다. 교양기초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및 비율	27
III. 대학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9
1. 대학 현황	29
2. 대학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 및 내용	31
가.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	31
나.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32
다. 영역별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	34
라. 영역별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40
마. 하위 영역별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46

1) 기초문해 하위 영역.....	46
2) 자유학예 인문학 하위 영역.....	48
3) 자유학예 사회과학 하위 영역.....	50
4) 자유학예 자연과학 하위 영역.....	52
5) 체험소양 하위 영역.....	54

IV.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57

1. 대학 현황.....	57
2. 전공자율선택제 구성 및 운영.....	58
가. 전공자율선택제 정원 및 충원.....	58
나.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조직.....	59
다.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구성원.....	62
라. 전공자율선택제 특화 교과 및 비교과.....	63

V. 논의 및 제언..... 65

VI. 참고문헌..... 70

VII. 부록..... 72

표 목 차

〈표 I-1〉 교양기초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 조사 교과목 분석 항목	10
〈표 I-2〉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분석 항목	11
〈표 II-1〉 대학 참여 현황	13
〈표 II-2〉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현황	14
〈표 II-3〉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현황	16
〈표 II-4〉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구성원 현황	17
〈표 II-5〉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교원 현황	18
〈표 II-6〉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직원 현황	19
〈표 II-7〉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예산(2024학년도)	20
〈표 II-8〉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전담기관 예산(2024학년도)	21
〈표 II-9〉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전임교원의 교육 분야	22
〈표 II-10〉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강좌 수(2025학년 1학기)	24
〈표 II-11〉 대학 교육과정 체계 및 이중설강 제도	24
〈표 II-12〉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25
〈표 II-13〉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26
〈표 I-14〉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 규모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27
〈표 II-14〉 교양기초교육과정 학점구성	28
〈표 III-1〉 참여대학 현황	29
〈표 III-2〉 교양교과목 분류 영역	31
〈표 III-3〉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2025학년 1학기 기준)	31
〈표 III-4〉 교양교과목 전체 운영 현황(2025학년 1학기 기준)	33
〈표 III-5〉 교양기초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35
〈표 III-6〉 기초문해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37
〈표 III-7〉 인문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37
〈표 III-8〉 사회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38
〈표 III-9〉 자연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39
〈표 III-10〉 체험소양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40
〈표 III-11〉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학점 구성(수/비율)	41

〈표 III-12〉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강좌 규모(수/비율).....	42
〈표 III-13〉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방식(수/비율).....	43
〈표 III-14〉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권장시기(수/비율).....	44
〈표 III-15〉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평가 방식(수/비율).....	45
〈표 III-16〉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수업 유형(수/비율).....	46
〈표 III-17〉 기초문해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47
〈표 III-18〉 자유학예 인문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49
〈표 III-19〉 자유학예 사회과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51
〈표 III-20〉 자유학예 자연과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53
〈표 III-21〉 체험소양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55
〈표 IV-1〉 대학 현황.....	57
〈표 IV-2〉 전공자율선택제 충원·정원.....	59
〈표 IV-3〉 1유형 전담기관 설치 유형 및 방법.....	60
〈표 IV-4〉 2유형 전담기관 설치 유형 및 방법.....	61
〈표 IV-5〉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전담 구성원.....	62
〈표 IV-6〉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특화 교과목 및 학점.....	63
〈표 IV-7〉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6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 빅 블러(Big Blur) 시대 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지원사업은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을 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도입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압박을 받은 다수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됨.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 51개교와 국립대학 2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모집 인원의 28.6%를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도 9,925명(6.6%) 대비 28,010명이 증가한 37,985명에 해당함(교육부,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독려하면서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과제 중심의 대학 구조 속에서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전공 쏠림에 따른 기초학문 약화, 재정지원사업 의존으로 인한 제도의 한시성, 학생 부적응 및 중도탈락 우려 등은 과거 실험대학이나 학부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함(이수정, 2024).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echnical skill 중심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타문화의 이해와 협업 등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한 soft skill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T자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 및 교양교육 체계의 재구조화, 파편화된 지식을 통합하고 학제간 횡단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 기초학문 기반의 통합적 토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되고 있음(하연섭, 2024).
- 이러한 문제와 우려 속에서 도입된 전공자율선택제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의 전공 탐색과 선택 그리고 이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선과 학사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환류 체계가 요구됨. 대학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혼란과 시행착오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음. 교과과정 개편, 교과목 개발, 소속감 제고 프로그램, 전공 선택 지원 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학생의 자율적 전공 선택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융합 인재 양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학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시행이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아직 부족함. 모든 정책과 연구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임. 특히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시행 이후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는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할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는 필수적임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나타난 대학의 교과과정 변화를 교양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2025학년도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향후 대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 조사는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 이후 2012년, 2014년, 2019년, 2023년에 네 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전의 현황을 다룬 조사였음. 따라서 2025년에 수행되는 본 조사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 교육과정, 특히 교양교육과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와 그 의미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학 교육과 교양교육의 방향 설정은 물론 고등교육 정책 제안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선행연구 현황

-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실태에 관한 연구는 1967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이후, 최근의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김선영, 2023)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를 통해 지속해서 수행되었음. 이미 여러 차례 종합·정리되어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략히 정리할 것이며, 아울러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교육의 변화

에 관한 선행연구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는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 2011년 이전의 교양교육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중앙교육연구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음. 중앙교육연구소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966년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 고등교육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했는데,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는 대학 교육과정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음. 해당 조사는 전국 18개 종합대학에 소속된 51개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총 69개 대학 중 5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조사 방법으로는 대학 요람 분석,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검토, 교수·학생·교무처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이 활용되었으며, 교육목표, 교육내용, 학습지도, 교육평가, 교수행정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도출된 조사 결과는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1967)에 종합적으로 보고되었음
- 한편 1982년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운영 현황 점검과 자기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 초기부터 대학평가를 해 왔음. 대학평가는 일정한 양식에 따른 각 대학의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는 1984년, 1986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대교협에서는 1984년 ‘학문영역별 평가’ 중 하나로 교양교육과정과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전국 1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교양교육과정 운영 주체, 교양교육과정의 학점과 교과명, 담당 교수 및 강사, 학습의 구성 및 규모, 조교 및 교재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함. 평가 결과는 『1984학년도 대학 교양·국민윤리 평가보고서』(1984)에 수록되었음. 1986년에는 111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윤리·한국사·국어·영어 등 교양 교과까지 병행되었으며,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 교육환경 등 교양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1986년도 대학 교양교육 전반 평가보고서』(1986) 및 개별 교과목 평가보고서(1986)에 수록하였음. 이후 대교협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이성호 외, 1988), 2001년에는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일환으로 전국 16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본 평가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 수업 및 평가,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 여건, 개선 노력 및 발전계획 등 6개 영역, 12개 평가 부문, 총 38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는 『2001년도 학문분야평

가인정제 교양교육분야 종합보고서』에 수록됨. 이후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를 근거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교양교육과정 편성 체계, 운영 현황, 운영 규모,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학기관인증평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대교협의 교양교육 평가가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 여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011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현황조사는 교양교육의 실질적인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교양교육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교기원은 교양기초교육을 넘어 대학교육의 철학과 비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범대학적 National Center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음. 특히 대학교육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심층적 분석이 필수적이었음. 2012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초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손동현, 2012; 유기용, 2014), 이를 토대로 교기원은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고 교양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해 왔음.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성 체계, 교양 교과목의 적합성 및 운영 현황,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교양교육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함. 그러나 대학 교육과정이 주기적으로, 최근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기원의 교양교육 현황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다행히 2019년과 2023년에 교양교육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윤승준, 2019; 김선영, 2023), 2025년 전공자율선택제의 전면적 확대 시행 이후 변화된 대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¹⁾
- 최근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교양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최선경·이효숙(2024)은 전공자율선택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전통적 학문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폭넓은 탐구와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통합 자

1) 물론 이 밖에도 강창동(2012), 이상임(2017), 정승원 외(2020) 등의 개인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는 김선영 외(2023),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8쪽에서 다룬 바 있다.

유학예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제안하였음. 융합교양교육에서 학문적 기반 형성의 중요성에 주목한 김은아(2025)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문별 핵심 개념과 방법 교육, 학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지식 구성 방식에 대한 메타적 이해와 학문 간 관점 차이에 대한 성찰과 조율을 포함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한편 정연재(2025)는 전공자율선택제가 전공 교육을 중심에 두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양교육이 전공 교육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비판적 지성의 함양, 학문의 세계와 삶의 세계와의 연결, 학문 경계를 넘는 포괄적 배움 등 교양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진로 및 학사지도(김문희, 2025; 우선영·서경화, 2025; 광미선·강석남·김영아, 2025; 정유남·백혜선·신흥임·이온순, 2025)와 관련 교과목 개발(남진숙, 2024; 조은원, 2025)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 편성,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사지도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학별 여건과 상황의 차이,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를 안착시키고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을 예방하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여 소개한 바 있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5)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또는 대학 교양교육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2025년도와 같이 대학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시기에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후속 보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고등교육 환경과 대학교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확한 실태 파악은 향후 고등교육 및 교양교육 정책 수립에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이번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현황 자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분석하고 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축적의 출발점이 될 것임

3. 연구 방법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본 조사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교양기초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는 ①대학 기본 정보 ②교양교육의 구조와 체계 ③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 학점 ④교양 강좌 편성 현황 및 교과목 리스트 등으로 구성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131개 대학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또한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교과목 리스트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며, 이 중 자료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된 6개 대학을 제외한 125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음.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은 94개 대학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였음

〈표 1-1〉 교양기초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 조사 교과목 분석 항목

구분	조사 내용
참여대학 기본정보	대학명, 설립유형, 학교소재지, 대학규모 등
교양교육 구조·체계	전담 기관의 명칭, 부서장 위상, 겸직여부, 구성원 현황, 예산, 전임교원 교육분야 등
교육과정 구성·학점	교양교육목표, 교양교육 구성 및 이수학점, 계열별 이수학점 등
25-1학기 교과목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 강좌 운영현황, 강좌규모, 학점 구성, 수강인원, 이수방식 등
이중설강 제도	이중설강 운영 여부, 이중설강 교과목 리스트
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 모집 정원 및 총원, 유형별 모집현황, 전공진입시기 등
	전담기관 명칭, 전담기관 설치 유형, 담당 교원 구성, 특화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

- 연구팀은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2023년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연구²⁾에서 사용한 교과목 분류표를 적용하였음. 이후 연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존 분류 항목 중 계열기초(전공기초) 항목을 '기타'로 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교과목 코딩을 최종 완료함

2) 김선영 외(2023). 한국대학의 교양기초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 1 -2〉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분석 항목

구분	코딩 항목(내용)				
기초문해	① 의사소통 I	② 의사소통 II	③ 사고	④ 정보문해	⑤ 기초과학, 등
인문학	⑥ 문학	⑦ 예술학	⑧ 역사학	⑨ 철학	⑩ 종교학
사회과학	⑪ 정치학	⑫ 경제학	⑬ 사회학	⑭ 문화학	⑮ 심리학
자연과학	⑯ 수리과학	⑰ 물질과학	⑱ 생명과학		
체험소양	⑲ 대학 교시 구현(종교 및 건학이념 구현) ⑳ 대학적응 및 진로(신입생세미나, 학사지도, 진로설계, 생애설계 등) ㉑ 정서적 체험교육(예술실기, 미적·정서적 체험 중심 교육) ㉒ 사회적 체험교육(사회봉사 등) ㉓ 신체적 체험교육(신체적 활동 중심 체육) ㉔ 취업·창업(현장실습, 인턴십, 취업특강, 벤처창업 등)				
기타	㉕ 기타(실용상식, 취미, 자격증, 전공계열 등)				
융복합	㉖ 융복합(2개 이상 학문 융합 교과 등)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학 맥락 변인별(설립유형, 계열, 권역, 대학 특성 등)로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수 학점에 대해서는 대학 맥락 변인(설립유형, 권역, 대학 규모 등)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수행함

나. 참여대학

- 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 현황조사는 131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며,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조사는 94개 대학이 참여하였음. 참여대학의 상세 기술은 각 장에서 제시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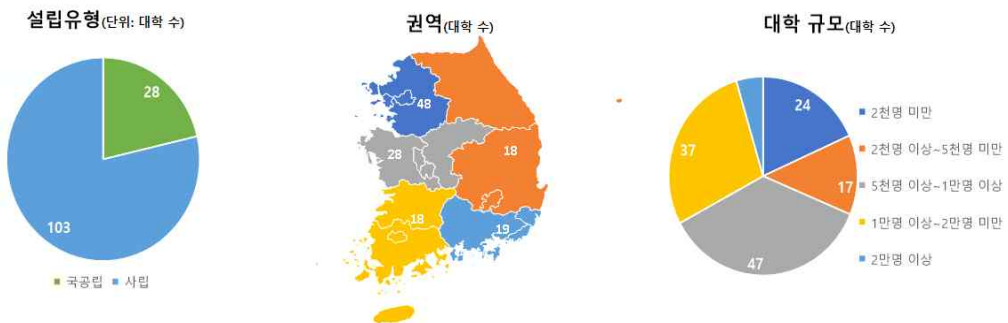
3) 조사 분야별 참여대학 명단은 〈VII. 부록〉을 확인 바람

II. 대학 교양기초교육 체계와 구성

1. 대학 현황

- 분석 대상은 총 131개 대학으로, 본교는 124개교(94.7%), 분교는 3개교(2.3%), 캠퍼스는 4개교(3.1%)로 구성됨.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28개교(21.4%), 사립대학이 103개교(78.6%)임. 대학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반종합대학이 115개교(87.8%)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목적대학은 해양 및 공학계열이 3개교(2.3%), 종교계열이 5개교(3.8%), 교육계열이 6개교(4.6%), 예체능계열이 2개교(1.5%)로 집계됨
-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이 48개교(36.6%)였으며,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28개교(21.4%), 부울경(부산·울산·경남) 19개교(14.5%),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18개교(13.7%),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18개교(13.7%)로 나타남
- 대학 규모별 분포는 재학생 수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학이 47개교(35.9%),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이 37개교(28.2%), 2천 명 미만 대학이 24개교(18.3%), 2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 대학이 17개교(13.0%), 2만 명 이상 대학이 6개교(4.6%)임

< 대학 참여 현황 >



〈표 II-1〉 대학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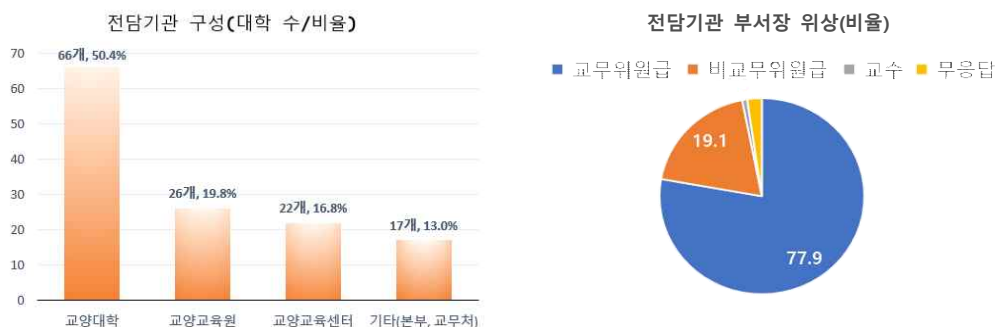
내용	빈도	비율
① 본교/분교/캠퍼스 구분		
- 본교	124	94.7
- 분교	3	2.3
- 캠퍼스	4	3.1
전체	131	100.0
② 설립유형		
- 국공립	28	21.4
- 사립	103	78.6
전체	131	100.0
③ 설립유형		
- 일반종합	115	87.8
- 특수목적(해양, 공학계열)	3	2.3
- 특수목적(종교계열)	5	3.8
- 특수목적(교육계열)	6	4.6
- 특수목적(예체능)	2	1.5
전체	131	100.0
④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8	36.6
-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18	13.7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28	21.4
-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18	13.7
-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19	14.5
전체	131	100.0
⑤ 대학규모		
- 2천명 미만	24	18.3
-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17	13.0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47	35.9
-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37	28.2
- 2만명 이상	6	4.6
전체	131	100.0

2. 교양기초교육 구조와 체계

가.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 131개 대학 중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이 교양대학 등 단과대학급으로 설립된 대학은 66개교(50.4%), 교양교육원급 기관은 26개교(19.8%), 교양교육센터(교양학부 포함)급 기관은 22개교(16.8%), 기타 기관(본부·교무처·없음 등)은 17개교(13.0%)로 구성됨
- 교양기초교육 기관 부서장 위상은 교무위원급 102개교(77.9%), 비교무위원급 25개교(19.1%), 교수 1개교(0.8%), 무응답 3개교(2.3%)임. 부서장의 겸직 여부는 겸직인 대학이 62개교(47.3%), 겸직하지 않는 대학이 57개교(43.5%), 무응답이 12개교(9.2%)로 나타남

<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현황 >



<표 II-2> 교양교육 전담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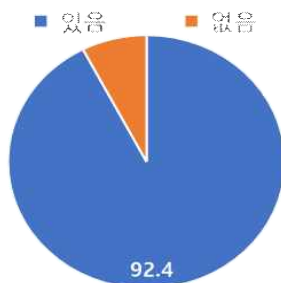
내용	빈도	비율
①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 구성		
- 교양대학	66	50.4
- 교양교육원	26	19.8
- 교양교육센터	22	16.8
- 기타(본부, 교무처, 교양학부, 없음 등)	17	13.0
전체	131	100.0

내용	빈도	비율
㉔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 부서장 위상		
- 교무위원급	102	77.9
- 교무위원급 아님	25	19.1
- 교수	1	0.8
- 무응답	3	2.3
전체	131	100.0
㉕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 부서장 겸직 여부		
- 겸직함	62	47.3
- 겸직하지 않음	57	43.5
- 무응답	12	9.2
전체	131	100.0

-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 내 위원회 설치 현황은 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이 121개교(92.4%), 미설치한 대학이 10개교(7.6%)이며, 대학당 평균 7.08회 실시함
- 교양기초교육을 위한 교양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은 설치한 대학이 61개교(46.6%), 미설치한 대학이 70개교(53.4%)임. 또한 교양교육연구소 설치 현황은 설치한 대학이 36개교(27.5%), 미설치한 대학이 95개교(72.5%)로 집계됨
- 교양기초교육 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운영한 대학은 89개교(67.94%)이며, 평균 4.81회 실시함

< 교양기초교육 전담 조직 현황 >

교양교육위원회(비율)



워크숍 등 질 관리 프로그램 개최(비율)



<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구성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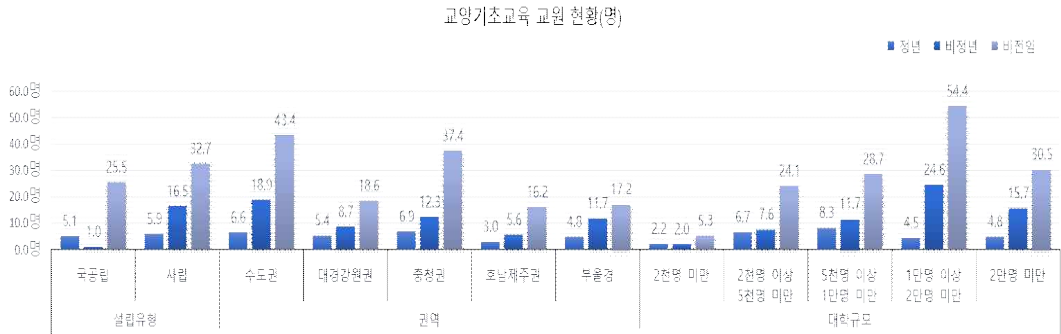


<표 II-4>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구성원 현황

내용	최소값(명)	최대값(명)	평균(명)
① 교원의 신분			
- 정년트랙	0	35	5.74
- 비정년트랙	0	98	13.21
- 비전임(강사, 겸임 등)	0	182	31.16
- 소계	0	219	50.11
② 직원의 신분			
- 정규직	0	21	2.43
- 계약직	0	29	2.89
- 소계	0	50	5.32
총합	0	242	55.44

- 131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03개교(78.6%)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에 소속된 교원 수는 사립대학이 평균 55.12명으로 국공립대학의 평균 31.71명보다 많음. 교원 구성 중 비정년 교원은 국공립대학이 평균 1.04명, 사립대학이 평균 16.52명으로 차이를 보임
- 권역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소속 교원 수는 수도권 지역 대학이 평균 68.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 지역 대학이 평균 56.68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정년 교원 수는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이 평균 3.00명으로 가장 적음
- 대학 규모별로는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소속 교원 수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학은 평균 48.72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은 평균 83.51명으로 분석됨

<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현황 >



<표 II-5>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교원 현황

구분		교원			소계
		정년	비정년	비전임	
설립 유형	국공립	5.14(16.2)	1.04(3.3)	25.54(80.5)	31.71(100.0)
	사립	5.90(10.7)	16.52(30.0)	32.69(59.3)	55.12(100.0)
권역	수도권	6.56(9.5)	18.90(27.5)	43.35(63.0)	68.81(100.0)
	대경강원권	5.39(16.5)	8.67(26.5)	18.61(57.0)	32.67(100.0)
	충청권	6.93(12.2)	12.32(21.7)	37.43(66.0)	56.68(100.0)
	호남제주권	3.00(12.1)	5.56(22.5)	16.17(65.4)	24.72(100.0)
	부울경	4.84(14.3)	11.74(34.7)	17.21(50.9)	33.79(100.0)
대학 규모	2천명 미만	2.17(23.0)	2.00(21.2)	5.25(55.7)	9.42(1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6.71(17.5)	7.59(19.8)	24.12(62.8)	38.41(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8.32(17.1)	11.68(24.0)	28.72(58.9)	48.72(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4.49(5.4)	24.62(29.5)	54.41(65.2)	83.51(100.0)
	2만명 이상	4.83(9.5)	15.67(30.7)	30.50(59.8)	51.00(100.0)

-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에 소속된 직원 수는 국공립대학이 평균 7.96명, 사립대학이 평균 4.60명이며, 사립대학은 계약직 직원이 평균 2.64명으로 정규직 직원 평균 1.96명보다 많았으며, 국공립대학은 정규직 직원이 평균 4.14명으로 계약직 직원 평균 3.82명보다 많음

-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소속 직원의 권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6.06명, 대경강원권이 4.56명, 충청권이 5.00명, 호남·제주권이 4.28명, 부울경이 5.63명이며, 직원의 수는 권역별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대학 규모별로는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소속 직원 수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 대학은 평균 14.67명으로 가장 많음

<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현황 >



〈표 II-6〉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직원 현황

구분		직원		
		정규직	계약직	소계
설립 유형	국공립	4.14(52.0)	3.82(48.0)	7.96(100.0)
	사립	1.96(42.6)	2.64(57.4)	4.60(100.0)
권역	수도권	2.67(44.1)	3.40(56.1)	6.06(100.0)
	대경강원권	1.89(41.4)	2.67(58.6)	4.56(100.0)
	충청권	2.21(44.2)	2.79(55.8)	5.00(100.0)
	호남제주권	2.28(53.3)	2.00(46.7)	4.28(100.0)
	부울경	2.79(49.6)	2.84(50.4)	5.63(100.0)
	대학 규모	2천명 미만	1.08(63.2)	0.63(36.8)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1.12(38.9)	1.76(61.1)	2.88(1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2.04(39.6)	3.11(60.4)	5.15(1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3.59(47.9)	3.89(51.9)	7.49(100.0)
	2만명 이상	7.33(50.0)	7.33(50.0)	14.67(100.0)

다.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예산

- 2024학년도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의 예산 규모는 대학당 평균 205,778,760.43원이며, 예산 재원별 구성은 교비가 평균 61,371,991.11원(70.18%), 외부재정지원사업비가 평균 144,406,769.32원(29.8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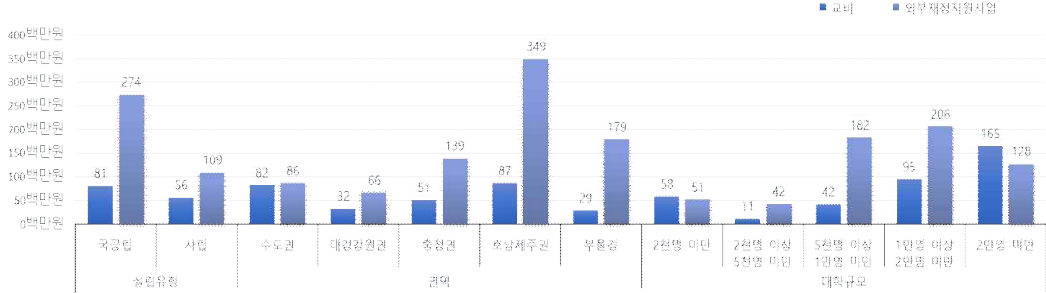
〈표 II-7〉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예산(2024학년도)

내용	최소값(원)	최대값(원)	평균(원)
- 교비	0	1,113,714,000	61,371,991.11
- 교비 외(외부재정지원사업 등)	0	2,782,415,000	144,406,769.32
총액	0	2,928,255,000	205,778,760.43

-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의 평균 예산은 국공립대학이 354,822,056.86원, 사립대학이 165,262,136.16원임. 예산 재원 구성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외부재정지원사업 비중이 교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기관 평균 예산이 436,139,710.33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부울경 지역 대학이 평균 207,237,059.68원임
-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교비 비중은 48.72%, 외부재정지원사업비 비중은 51.28%로 두 재원 간 비율이 유사함. 반면, 수도권 외 권역에서는 교비와 외부재정지원사업비 비율 간 차이가 확인됨
- 외부재정지원사업 비중은 호남·제주권이 80.11%, 부울경이 86.19%로, 수도권 지역의 51.28%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대학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에 따라 교양교육 전담 기관의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학의 외부재정지원사업 비중은 81.44%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현황 >

교양 교육 전담 기관 예산(백만원)



<표 II-8>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양교육 전담 기관 예산(2024학년도)

구분		교비(원/비율)	외부재정지원사업(원/비율)	총액(원/비율)
설립 유형별	국공립	80,626,030.54(22.72)	274,196,026.32(77.28)	354,822,056.86(100.00)
	사립	56,137,883.30(33.97)	109,124,252.85(66.03)	165,262,136.16(100.00)
권역별	수도권	82,063,442.83(48.72)	86,362,952.69(51.28)	168,426,395.52(100.00)
	대경강원권	32,205,960.22(32.78)	66,047,487.78(67.22)	98,253,178.00(100.00)
	충청권	50,572,567.25(26.64)	139,283,665.14(73.36)	189,856,232.39(100.00)
	호남제주권	86,727,752.56(19.89)	349,411,957.78(80.11)	436,139,710.33(100.00)
	부울경	28,623,775.05(13.81)	178,613,284.63(86.19)	207,237,059.68(100.00)
대학 규모별	2천명 미만	57,873,728.13(53.03)	51,262,890.00(46.97)	109,136,618.13(10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10,998,870.53(20.69)	42,153,098.82(79.31)	53,151,969.35(10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1,585,009.98(18.56)	182,479,264.83(81.44)	224,064,274.81(10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95,115,623.62(31.57)	206,179,713.24(68.43)	301,295,336.86(100.00)
	2만명 미만	165,001,169.67(56.40)	127,533,317.33(43.60)	292,534,487.00(100.00)
	2만명 이상	165,001,169.67(56.40)	127,533,317.33(43.60)	292,534,487.00(100.00)

라.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전임교원의 교육 분야

-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의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교육 분야는 기초문해, 자유학예, 체험소양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정년교원과 비정년교원 모두 기초문해 영역 중 외국어교육에 해당하는 의사소통Ⅱ 영역에서 평균 강의 인원이 가장 많음(정년교원 1.11명, 비정년교원 7.18명)

〈표 Ⅱ-9〉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 전임교원의 교육 분야⁴⁾

구분		정년교원		비정년교원		
		최대값(명)	평균(명)	최대값(명)	평균(명)	
기초문해	의사소통 I	15	0.95	23	1.96	
	의사소통 II	14	1.11	88	7.18	
	사고	4	0.24	10	0.67	
	정보문해	14	0.60	18	1.18	
	수학, 기초과학	24	0.59	16	0.73	
자유학예	인문·예술학	문학	9	0.21	11	0.31
		예술학	9	0.28	7	0.31
		역사학	4	0.29	6	0.29
		철학	4	0.25	6	0.29
		종교학	6	0.16	2	0.06
	사회과학	정치학	3	0.12	2	0.06
		경제학	9	0.25	4	0.16
		사회학	5	0.47	7	0.41
		문화학	14	0.40	10	0.34
		심리학	6	0.20	4	0.15
	자연과학	수리과학	1	0.02	3	0.05
		물질과학	4	0.12	3	0.13
		생명과학	10	0.18	2	0.11
체험소양	대학 교시 구현	4	0.21	7	0.13	
	대학적응·진로	46	0.79	23	0.49	
	정서적 체험교육	8	0.11	5	0.06	
	사회적 체험교육	30	0.34	6	0.09	
	신체적 체험교육	15	0.34	15	0.22	

4) 교원이 다양한 분야를 가르칠 경우, 가장 많은 시수/학점에 해당하는 영역을 1개 선택하여 응답함

구분		정년교원		비정년교원	
		최대값(명)	평균(명)	최대값(명)	평균(명)
기타	취업·창업	5	0.15	3	0.13
	기타(취미 등)	28	0.63	9	0.40
	융복합	6	0.15	8	0.12
소계		171	9.20	175	16.05

마.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강좌 수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에 소속되어 교양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과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관에 소속되지는 않으나 교양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을 모두 포함한 교양기초교육 담당 교원 수는 평균 200.47명임. 전임 교원 중에는 정년트랙 교원이 평균 77.04명(38.43%), 비정년트랙 교원이 평균 33.99명(16.96%)이며, 비전임 교원 중에는 강사가 평균 59.27명(29.5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교양기초 교과목 수는 평균 437.02개이며, 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은 정년트랙 교원이 평균 154.66개(35.39%), 비정년트랙 교원이 평균 105.43개(24.12%)로 나타남. 비전임 교원 중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 수는 평균 109.08개(24.96%)임

<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교원 및 강좌 수(2025학년도 1학기) >



〈표 II-10〉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강좌 수(2025학년 1학기)

구분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		교양기초 교과목 담당 강좌 수	
		최대값(명)	평균(명)	최대값(개)	평균(개)
① 전임교원	- 정년트랙	672	77.04	1,495	154.66
	- 비정년트랙	700	33.99	865	105.43
② 비전임교원	- 초빙	166	11.82	357	31.68
	- 겸임	50	6.18	96	11.69
	- 산학중점	26	0.73	47	1.45
	- 강사	363	59.27	534	109.08
	- 기타	85	11.44	265	23.02
소계		1,221	200.47	2,006	437.02

3. 대학 교육과정 및 교양기초교육과정 체계

가. 대학 교육과정 체계와 학점 구성

- 대학교육과정인 교양·전공·일반선택의 삼원체계를 갖춘 대학은 51개교(38.9%)이고 교양·전공의 이원 체계를 갖춘 대학은 78개교(59.5%)임. 교육과정 체계 측면에서, 삼원체계를 갖춘 대학이 38.9%에 불과하여, 자칫 일반선택 교과목이 교양교육과정으로 유입되는 등 교양교육과정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기초학문 분야의 전공 교과를 교양 교과로 병행 개설하고, 해당 교과목을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는 이중설강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6개교(19.8%)로 조사됨

〈표 II-11〉 대학 교육과정 체계 및 이중설강 제도

내용	빈도	비율
① 교육과정 구성		
- 이원체계(교양·전공) 교육과정	78	59.5
- 삼원체계(교양·전공·일반선택) 교육과정	51	38.9
- 무응답	2	1.5
전체	131	100.0
② 이중설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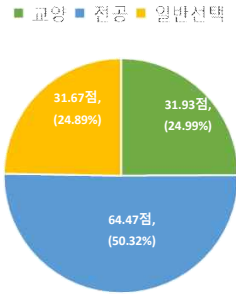
내용	빈도	비율
- 운영	26	19.8
- 미운영	104	79.4
- 무응답	1	0.8
전체	131	100.0

나.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및 비율⁵⁾

- 2025학년도 기준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14학점임. 이중 전공교육과정의 이수 학점은 평균 64.47학점(50.32%),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평균 31.93학점(24.99%)으로 구성되며,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을 제외한 일반선택의 이수학점은 평균 31.67학점(24.89%)으로 조사됨

< 대학 교육과정 학점 구성 및 비율(2025학년도) >

2025학년도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비율



〈표 II-12〉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졸업이수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전체	106	31.93	24.99	101	64.47	50.32	101	31.67	24.89	104	128.14	100.00

- 5) 131개 대학 중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 대학(해양/공학/종교/교육/예체능)을 제외한 115개(87.8%)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을 분석함. 115개 대학 중 계열별 학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대학은 결측 처리함

- 계열별 졸업 학점 현황을 보면, 인문계열은 평균 127.23학점으로, 교양교육과정은 평균 31.74학점(25.00%), 전공교육과정은 평균 62.20학점(48.96%), 일반선택은 평균 33.45학점(26.44%)임. 사회계열의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7.42학점으로, 교양교육과정은 평균 31.79학점(25.05%), 전공교육과정은 평균 62.15학점(48.79%), 일반선택은 평균 33.23학점(26.29%)임. 자연계열은 평균 128.78학점의 졸업 이수를 요구하며, 교양교육과정은 평균 31.56학점(24.58%), 전공교육과정은 평균 67.22학점(52.18%), 일반선택은 평균 29.92학점(23.43%)임. 공학계열의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9.49학점이며, 교양교육과정은 평균 32.58학점(25.18%), 전공교육과정은 평균 68.19학점(52.59%), 일반선택은 평균 28.88학점(22.37%)임
-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계열별로 24.58%~25.18% 범위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 반면, 전공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서 각각 52.18%와 52.59%로 50%를 상회함
- 이번 조사 결과, 교양교육 이수 비율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권장하는 졸업학점 기준인 35%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교양교육이 학부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전공 이수 비율은 평균 50.32%이고 자연 및 공학계열은 52% 이상으로, 대학교육과정이 여전히 전공 중심 구조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줌. 또한 교양 이수 비율은 <표 I-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열, 권역,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로 25%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13〉 계열별 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계열	교양			전공			일반			졸업이수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대학수	학점	비율
인문	105	31.74	25.00	100	62.20	48.96	100	33.45	26.44	103	127.23	100.00
사회	98	31.79	25.05	93	62.15	48.79	93	33.23	26.29	96	127.42	100.00
자연	94	31.56	24.58	88	67.22	52.18	87	29.92	23.43	92	128.78	100.00
공학	85	32.58	25.18	83	68.19	52.59	81	28.88	22.37	86	129.49	100.00
전체	106	31.93	24.99	101	64.47	50.32	101	31.67	24.89	104	128.14	100.00

- 설립유형별 졸업 이수학점을 보면, 전공이수학점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국공립대학은 55.39%로 사립대학의 49.22%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면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국공립대학은 25.97%, 사립대학은 24.78%로 비교

적 유사한 수준임

- 권역별로는 전공이수학점이 48.23%~52.72%임. 구체적으로,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울경 지역은 전공이수학점 비율이 각각 52.64%, 50.56%, 52.75%로 50%를 상회한 반면, 수도권과 대경강원권은 각각 48.62%, 48.2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교양 교육과정 이수학점 비율은 권역별로 24.69%~25.60% 범위로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
-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2천 명 미만 대학의 전공이수학점 비율은 50.05%인 반면, 2만 명 이상 대학은 53.31%로 나타남.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비율은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24.45%~25.30% 범위로 나타남

〈표 1-14〉 설립유형별·권역별·대학규모별 교육과정의 학점구성 현황

구분		교양(비율)	전공(비율)	일반(비율)	졸업이수(비율)
설립 유형별	국공립	34.07(25.97)	72.52(55.39)	24.75(18.91)	130.86(100.00)
	사립	31.46(24.78)	62.73(49.22)	33.08(26.11)	127.57(100.00)
권역별	수도권	31.50(24.69)	62.57(48.62)	34.06(26.81)	128.93(100.00)
	대경강원권	31.29(24.91)	60.56(48.23)	34.90(27.84)	125.58(100.00)
	충청권	32.87(25.60)	67.73(52.64)	27.88(21.76)	128.48(100.00)
	호남제주권	32.18(24.99)	64.71(50.56)	31.51(24.72)	127.77(100.00)
	부울경	31.78(24.78)	67.52(52.75)	28.99(22.71)	128.10(100.00)
대학 규모별	2천명 미만	32.11(25.30)	63.50(50.05)	30.89(24.64)	126.50(100.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31.39(24.45)	66.19(52.20)	30.70(24.03)	127.08(10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1.86(24.91)	62.97(49.10)	33.46(26.12)	128.19(10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32.05(25.17)	65.37(50.67)	30.62(24.19)	129.06(100.00)
	2만명 이상	32.58(25.27)	67.70(53.31)	28.52(22.27)	127.00(100.00)

다. 교양기초교육과정의 학점 구성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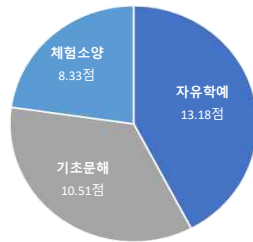
- 교양기초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평균 31.93학점이며, 이 중 기초문해교육은 평균 10.51학점(34.94%), 자유학예교육은 평균 13.18학점(42.31%), 체험소양/취·창업/계열기초교육은 평균 8.33학점(22.75%)으로 구성됨

- 교양기초교육 구성에서 자유학예교육 비율은 42.31%로 가장 높으나 교양 전체 이수학점이 낮아 자유학예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에는 절대적 규모가 부족하고 자유학예교육 영역에 포함된 교과목의 상당수가 기초학문 중심의 융합형 교과목의 성격과 무관하기에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자유학예교육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교양기초교육과정 학점 구성 및 비율(2025학년도) >

2025년 교양 기초 교육과정의 학점 현황

■ 자유학예교육 ■ 기초문해교육 ■ 체험소양/취.창업/계열기초교육



<표 II-14> 교양기초교육과정 학점 구성

구분	기초문해교육	자유학예교육	체험소양/취.창업/계열기초	계
학점	10.51	13.18	8.33	31.93
비율	34.94	42.31	22.75	100.00

Ⅲ. 대학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대학 현황⁶⁾

- 대학 교양기초교육과정 분석에 포함된 대학은 총 125개교이며, 본교 118개교(94.4%), 분교 3개교(2.4%), 캠퍼스 4개교(3.2%)로 구성됨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26개교(20.8%), 사립대학이 99개교(79.2%)임
- 권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44개교(35.2%)로 가장 많으며, 충청권 대학 28개교(22.4%), 부울경 대학 19개교(15.2%), 대경강원권 대학과 호남·제주권 지역 대학이 각각 17개교(13.6%)로 분포함
- 대학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학이 44개교(35.2%)로 가장 많으며,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이 37개교(29.6%), 2천 명 미만 대학이 21개교(16.8%) 순으로 나타남



〈표 Ⅲ-1〉 참여대학 현황

내용	빈도	비율
① 본교/분교/캠퍼스 구분		
- 본교	118	94.4
- 분교	3	2.4
- 캠퍼스	4	3.2
전체	125	100.0

6) 조사에 응답한 131개 대학 중 2025학년도 1학기 교양기초 교과목을 제공한 대학은 125개교임

내용	빈도	비율
㉒ 설립유형 I		
- 국공립	26	20.8
- 사립	99	79.2
전체	125	100.0
㉓ 설립유형 II		
- 일반종합	112	89.6
- 특수목적(해양공학계열)	3	2.4
- 특수목적(종교계열)	3	2.4
- 특수목적(교육계열)	5	4.0
- 특수목적(예체능)	2	1.6
전체	125	100.0
㉔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4	35.2
-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17	13.6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28	22.4
-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17	13.6
-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19	15.2
전체	125	100.0
㉕ 대학규모		
- 2천명 미만	21	16.8
-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17	13.6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44	35.2
-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37	29.6
- 2만명 이상	6	4.8
전체	125	100.0

2. 대학 교양기초교육과정 편성 및 내용

가.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125개 대학에서 제공한 교양교과목 수는 총 38,907개임. 교양교과목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표준 모델안(안)을 기준으로 하여, 7개 영역(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과 26개의 하위 영역(의사소통 I 7), 의사소통 II, 문학, 예술학, 수리과학, 생명과학 등)으로 분류함⁸⁾

〈표 III-2〉 교양교과목 분류 영역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의사소통 I	문학	정치학	수리과학	대학교시구현	융복합	취업·창업
의사소통 II	예술학	경제학	물질과학	대학적응·진로		실용, 계열기초 등
사고	역사학	사회학	생명과학	정서적 체험		
정보문해	철학	문화학		사회적 체험		
기초과학수학	종교학	심리학		신체적 체험		

- 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영역별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은 〈표 III-2〉와 같음

〈표 III-3〉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영역		빈도	비율	하위영역	빈도	비율
기초문해		14,332	36.8	- 의사소통 I	2,987	7.7
				- 의사소통 II	6,338	16.4
				- 사고	1,054	2.7
				- 정보문해	2,125	5.5
				- 기초과학, 수학 등	1,778	4.6
자유학예	인문예술	4,307	11.1	- 문학	1,014	2.6
				- 예술학	1,203	3.1
				- 역사학	939	2.4
				- 철학	855	2.2
				- 종교학	296	0.8

7) 의사소통 I(국어), 의사소통 II(영어 등 외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8) 분류 과정에서 7개 영역과 26개의 하위영역 모두 포함되지 않는 2개 교과목을 제외한 38,905개 교과목이 분석됨

영역		빈도	비율	하위영역	빈도	비율
사회과학	4,777	12.3	- 정치학	530	1.4	
			- 경제학	358	0.9	
			- 사회학	1,570	4.0	
			- 문화학	1,801	4.6	
			- 심리학	518	1.3	
자연과학	1,428	3.7	- 수리과학	179	0.5	
			- 물질과학	605	1.6	
			- 생명과학	644	1.7	
체험소양	10,180	26.2	- 대학 교시 구현	986	2.5	
			- 대학적응 및 진로	5,469	14.1	
			- 정서적 체험교육	581	1.5	
			- 사회적 체험교육	712	1.8	
			- 신체적 체험교육	1,249	3.2	
			- 취업·창업	1,183	3.0	
융복합	655	1.7	융복합	655	1.7	
기타	3,226	8.3	기타	3,226	8.3	
결측	2	0.0	결측	2	0.0	
전체	38,907	100.0	전체	38,907	100.0	

나.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 교양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3학점 교과목이 16,430개(42.2%)로 가장 많았고, 2학점 교과목 14,139개(36.3%), 1학점 및 1.5학점 교과목 6,356개(16.3%) 순으로 나타남. 0학점 및 0.5학점 교과목은 1,842개(4.7%)였으며, 4학점 이상 교과목은 72개(0.2%)임
- 강좌 규모별로는 수강 인원 31~50명 규모의 강좌가 12,418개(31.9%)로 가장 많았고, 51~100명 규모 강좌 8,521개(21.9%), 21~30명 규모 강좌 6,020개(15.5%), 1~20명 규모 강좌 5,350개(13.8%), 101명 이상 대규모 강좌 1,568개(4.0%)순으로 나타남
- 이수 방식은 선택형 교과목이 22,434개(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수 권장 시기는 제한 없음으로 설정된 교과목이 17,648개(45.4%)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권장 교과목은 13,406개(34.5%), 2학년 이상 권장 교과목은 3,339개

(8.6%)로 나타남

-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방식이 22,937개(59.0%)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평가 방식은 5,993개(15.4%), Pass/Fail 평가방식은 6,045개(15.5%)로 나타남

〈표 Ⅲ-4〉 교양교과목 전체 운영 현황(2025학년 1학기 기준)

내용	빈도	비율	비고
① 학점구성			
- 0학점, 0.5학점	1,842	4.7	
- 1학점, 1.5학점	6,356	16.3	
- 2학점	14,139	36.3	
- 3학점	16,430	42.2	
- 4학점 이상	72	0.2	
- 무응답/결측	68	0.2	
전체	38,907	100.0	
② 강좌규모			
- 1~20명	5,350	13.8	
- 21~30명	6,020	15.5	
- 31~50명	12,418	31.9	
- 51~100명	8,521	21.9	
- 101~200명	852	2.2	
- 201명 이상	716	1.8	
- 무응답/결측	5,030	12.9	
전체	38,907	100.0	
③ 이수방식			
- 필수	12,008	30.9	
- 선택	22,434	57.7	
- 무응답/결측	4,465	11.5	
전체	38,907	100.0	
④ 이수권장시기			
- 1학년	13,406	34.5	
- 2학년 이상	3,339	8.6	
- 제한 없음	17,648	45.4	
- 무응답/결측	4,514	11.6	
전체	38,907	100.0	
⑤ 평가방식			

내용	빈도	비율	비고
- 상대평가	22,937	59.0	<p>평가 방식(강좌 수)</p>
- 절대평가	5,993	15.4	
- P/F	6,045	15.5	
- 무응답/결측	3,932	10.1	
전체	38,907	100.0	

㉞ 수업유형			<p>수업 유형(강좌 수)</p>
- 대면	31,783	81.7	
- 비대면	2,496	6.4	
- 블렌디드	2,631	6.8	
- 무응답/결측	1,997	5.1	
전체	38,907	100.0	

다. 영역별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⁹⁾

- 전체 38,905 교과목 중 기초문해 영역이 14,332개(36.8%)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체험소양 영역 10,180개(26.2%), 사회과학 영역 4,777개(12.3%), 인문학 영역 4,307개(11.1%), 자연과학 영역 1,428개(3.7%), 융복합 영역 655개(1.7%) 순으로 개설됨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 중 기초문해 36.8%와 체험소양 26.2%가 과반을 차지하여 교양교육이 자유학예 기반의 학문적 탐구 중심보다는 기능중심 교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자유학예 영역 교과목 편성 현황에서 인문예술 교과목 비율 11.1%, 사회과학 교과목 비율 12.3%, 자연과학 교과목 3.7%를 합산할 경우 27.1%에 그쳐 기초학문 기반 자유학예교육이 교양교육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특히 자연과학 영역 교과 비율이 3.7%에 불과하여 인간, 사회, 자연의 균형적 탐색이라는 자유학예교육의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교양교과목 편성 현황에서 체험소양 영역은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학적응 및 진로 14.1%, 취업·창업 3.0% 교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체험소양교육을 비교과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교기원 표준모델¹⁰⁾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9) 편성 현황에 분석 결과는 대학 측의 응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교기원의 분류기준에 의한 현황 분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10) 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konige.kr/notice/notice_view.php?bbs_cd=2022123000001&stx=&bsearch=&pageno=1

- 융복합 영역 교과목 비율은 1.7%에 불과하여 자유학예교육을 토대로 한 횡단적 사고와 통합적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최근 교양교육의 흐름과 방향이 교과 편성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기타 영역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교양교과의 성격과 교육목표가 불분명한 과목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는 교양교육의 정체성 원칙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표 III-5> 교양기초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교과목 수	14,332	4,307	4,777	1,428	10,180	655	3,226	38,905
비율	36.8	11.1	12.3	3.7	26.2	1.7	8.3	100.0

-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 영역에 해당하는 14,332개 교과목 중 하위영역인 의사소통II 영역이 6,388개(44.6%)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의사소통I 영역은 2,987개(20.8%), 정보문해 영역은 2,125개(14.8%), 기초과학·수학 영역은 1,778개(12.4%), 사고 영역은 1,054개(7.4%) 순으로 개설됨
- 지난 2023¹¹⁾년도 기초문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분석결과, 평균 10.19학점 중 의사소통I과 의사소통II가 각각 3.06 및 3.79학점, 정보문해 교육이 2.06학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이 0.47학점, 논리적·비판

11) 김선영 외(2023).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적·창의적 사고 교육 분야의 이수학점은 0.58학점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었음. 2023년도 학점 배치 분석 결과와 2025년도 교과목 수에 관한 분석 결과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의 교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사고 교육 분야의 수보다 많은 것은 분류기준에 대한 각 대학 측과 교기원의 기준 차이,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의 차이, 기초과학·수학 및 양적 추론 분야가 학문 특성상 더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초문해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 개설 교과목 수를 살펴보면, 사고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지나치게 적게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됨. 교양기초교육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비판적·논리적 사고 교육이 의사소통 교육이나 정보문해 교육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대학에서 표방하는 교육목표가 실제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고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¹²⁾

< 기초문해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12) 2023년도 조사 결과,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창의융합’, ‘문제해결’, ‘미래사회 대비’ 와 같은 키워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6〉 기초문해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수학	전체
교과목 수	2,987	6,388	1,054	2,125	1,778	14,332
비율	20.8	44.6	7.4	14.8	12.4	100.0

- 인문학 영역에 포함된 교과목 4,307개의 세부 구성은 예술학 분야가 1,203개(27.9%)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문학 1,014개(23.5%), 역사학 939개(21.8%), 철학 855개(19.9%), 종교학 296개(6.9%) 순으로 교과목이 개설됨

〈 인문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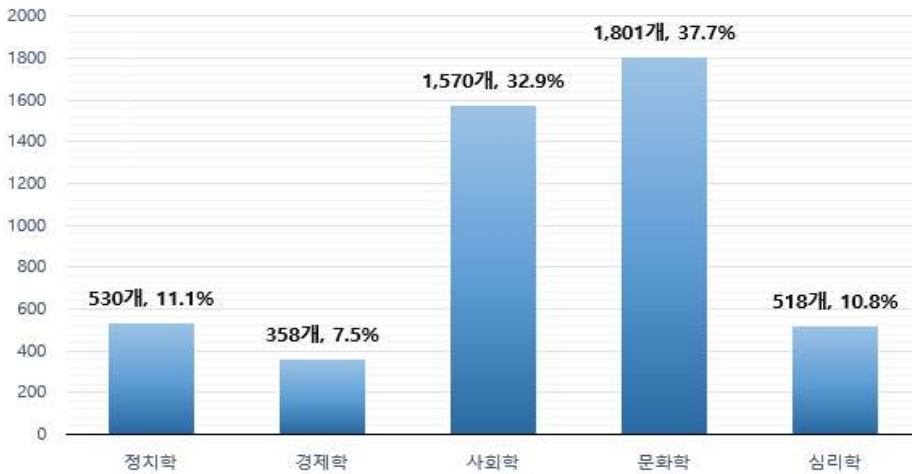
〈표 Ⅲ-7〉 인문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전체
교과목 수	1,014	1,203	939	855	296	4,307
비율	23.5	27.9	21.8	19.9	6.9	100.0

- 사회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4,777개의 교과목 중 문화학 분야가 1,801개(37.7%)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사회학 1,570개(32.9%), 정치학 530개(11.1%), 심리학 518개(10.8%), 경제학 358개(7.5%) 순으로 개설됨
- 교과목 분류 과정에서 사회학과 문화학은 엄밀한 의미의 학문 분야로 한정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학이나 문화학으로 분류된 교과목의 수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학·문화학 관련 교양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다루는 교과목이나 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들이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사회학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 교과목들 역시 문화학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표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분류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사회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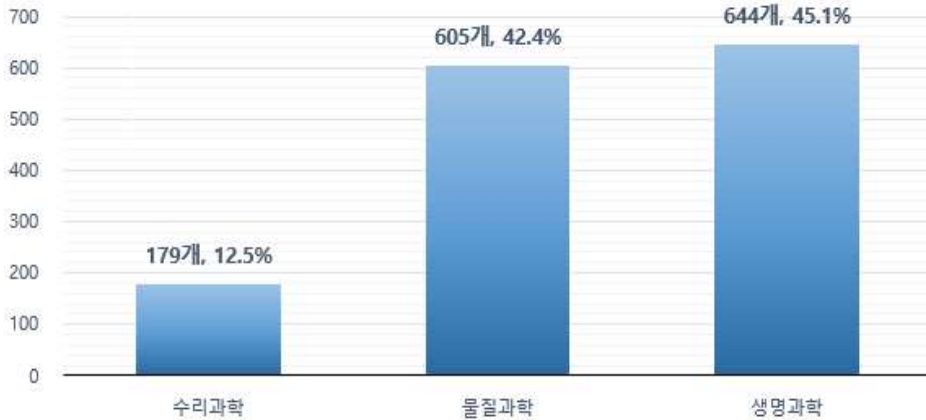
<표 III-8> 사회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전체
교과목 수	530	358	1,570	1,801	518	4,777
비율	11.1	7.5	32.9	37.7	10.8	100.0

- 자연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1,428개의 교과목 중 생명과학 분야가 644개(45.1%)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물질과학 605개(42.4%), 수리과학 179개(12.5%) 순으로 개설됨
- 생명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은 주로 생물학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음. 반면 물질과학 분야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과목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물질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은 보다 다양하게 개발·개설될 필요 있음

< 자연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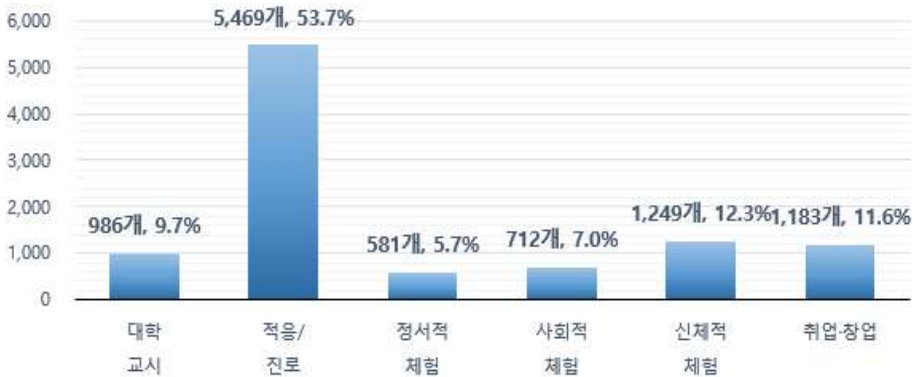
<표 III-9> 자연과학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전체
교과목 수	179	605	644	1,428
비율	12.5	42.4	45.1	100.0

- 체험소양 영역에 해당하는 10,180개의 교과목 중 적응·진로 관련 교과목이 5,469개(53.7%)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신체적 체험교육 1,249개(12.3%), 취업·창업 1,183개(11.6%), 대학교시 구현 986개(9.7%), 사회적 체험교육 712개(7.0%), 정서적 체험교육 581개(5.7%) 순으로 개설됨. 이와 같은 결과는 체험소양 교육이 대학 적응 및 진로 교육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고, 교양교육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취·창업 교과목이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체험소양이 지향해야 할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체험의 본래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학적응, 진로 및 취업, 창업 관련 교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수 교과가 1-1.5학점으로 운영되어 비교과 중심 운영을 권고한 교기원 표준모델 원칙과 상충됨
- 최근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고 학습 설계를 돕는 등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서 적응·진로 영역의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의 교과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편중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저한 제도적·교육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적응·진로 영역의 확대가 교양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기회 보장과 핵심 역량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체험소양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2025학년도 1학기) >



<표 III-10> 체험소양 하위영역별 교과목 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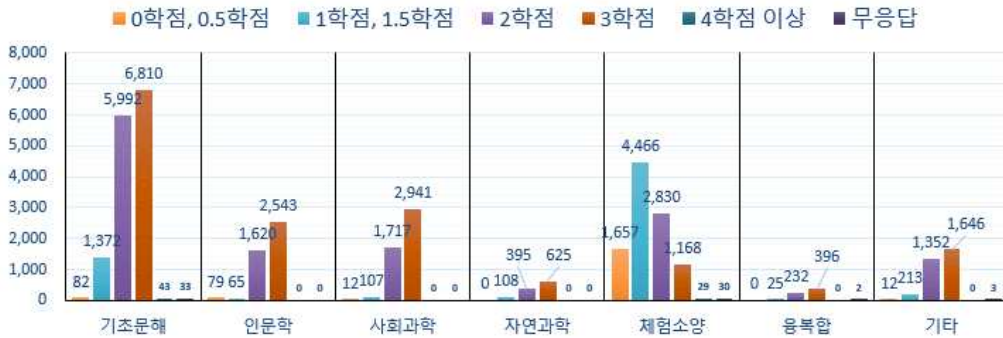
구분	대학교시구현	적응/진로	정서적체험	사회적체험	신체적체험	취업·창업	전체
교과목 수	986	5,469	581	712	1,249	1,183	10,180
비율	9.7	53.7	5.7	7.0	12.3	11.6	100.0

라. 영역별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학점 구성은 3학점 교과목이 16,429개(42.2%)로 가장 많았고, 2학점 교과목 14,138개(36.3%), 1학점 및 1.5학점 교과목 6,356개(16.3%), 0학점 및 0.5학점 교과목은 1,842개(4.7%), 4학점 이상 교과목은 72개(0.2%)임
- 영역별 학점 구성을 보면, 체험소양 영역의 교과목은 1학점, 1.5학점 교과목이 가장 많은 반면(43.9%), 나머지 영역의 교과목은 3학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교양교과목 학점 구성은 2-3학점 교과목이 78.5%로 다수를 차지하나 1-1.5학점 및

무학점 교과도 21%에 달해 충분한 학문적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과가 구조적으로 존재함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학점 구성(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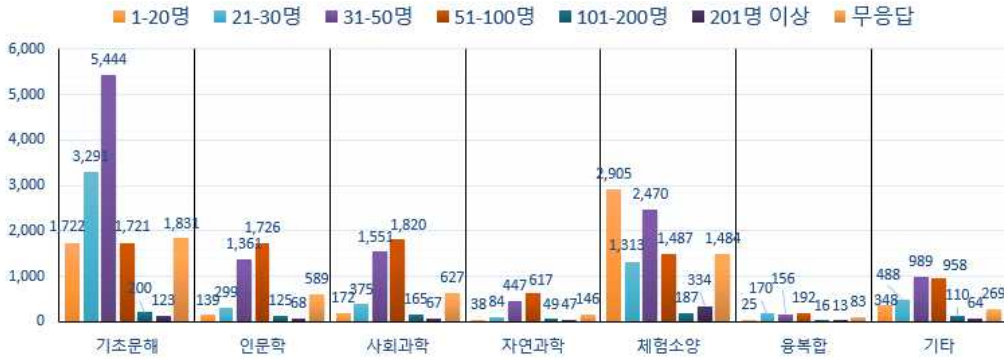
<표 Ⅲ-11>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학점 구성(수/비율)

학점구성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0학점, 0.5학점	82(0.6)	79(1.8)	12(0.3)	0(0.0)	1,657(16.3)	0(0.0)	12(0.4)	1,842(4.7)
1학점, 1.5학점	1,372(9.6)	65(1.5)	107(2.2)	108(7.6)	4,466(43.9)	25(3.8)	213(6.6)	6,356(16.3)
2학점	5,992(41.8)	1,620(37.6)	1,717(35.9)	395(27.7)	2,830(27.8)	232(35.4)	1,352(41.9)	14,138(36.3)
3학점	6,810(47.5)	2,543(59.0)	2,941(61.6)	925(64.8)	1,168(11.5)	396(60.5)	1,646(51.0)	16,429(42.2)
4학점 이상	43(0.3)	0(0.0)	0(0.0)	0(0.0)	29(0.3)	0(0.0)	0(0.0)	72(0.2)
무응답	33(0.2)	0(0.0)	0(0.0)	0(0.0)	30(0.3)	2(0.3)	3(0.1)	68(0.2)
전체	14,332 (100.0)	4,307 (100.0)	4,777 (100.0)	1,428 (100.0)	10,180 (100.0)	655 (100.0)	3,226 (100.0)	38,905 (100.0)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강좌 규모는 31~50명 규모 강좌가 12,418개(31.9%)로 가장 많았으며, 51~100명 규모 강좌 8,521개(21.9%), 21~30명 규모 강좌 6,020개(15.5%), 1~20명 규모 강좌 5,349개(13.7%) 순으로 나타남
- 영역별 강좌규모를 보면, 기초문해 영역은 31~50명 규모 강좌가 5,444개(38.0%)로 가장 많으며, 21~30명 규모 강좌 3,291개(23.0%), 1~20명 규모 강좌 1,722개(12.0%) 순으로 구성됨
- 자유학예(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과 융복합 영역은 51~100명 규모 강좌 비율이 가장 높으며, 체험소양 영역은 1~20명 규모 강좌가 2,905개(2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문해 영역, 융복합 영역, 체험소양 영역은 50명 규모 이하의 강좌 비율이 절반을 넘어,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유학예(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은 50명 규모 이하의 강좌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교수자 강의 중심의 교과목이 될 가능성이 큼. 자유학예 교과목을 중·대형 규모 강좌로 운영할 경우, 교수자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팀 활동을 통한 리더십, 토론 기반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시민성 교육 등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업 규모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강좌 규모(수)>



<표 III-12>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강좌 규모(수/비율)

강좌 규모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1-20명	1,722(12.0)	139(3.2)	172(3.6)	38(2.7)	2,905(28.5)	25(3.8)	348(10.8)	5,349(13.7)
21-30명	3,291(23.0)	299(6.9)	375(7.9)	84(5.9)	1,313(12.9)	170(26.0)	488(15.1)	6,020(15.5)
31-50명	5,444(38.0)	1,361(31.6)	1,551(32.5)	447(31.3)	2,470(24.3)	156(23.8)	989(30.7)	12,418(31.9)
51-100명	1,721(12.0)	1,726(40.1)	1,820(38.1)	617(43.2)	1,487(14.6)	192(29.3)	958(29.7)	8,521(21.9)
101-200명	200(1.4)	125(2.9)	165(3.5)	49(3.4)	187(1.8)	16(2.4)	110(3.4)	852(2.2)
201명 이상	123(0.9)	68(1.6)	67(1.4)	47(3.3)	334(3.3)	13(2.0)	64(3.0)	716(1.8)
무응답	1,831(12.8)	589(13.7)	627(13.1)	146(10.2)	1,484(14.6)	83(12.7)	269(8.3)	5,029(12.9)
전체	14,332 (100.0)	4,307 (100.0)	4,777 (100.0)	1,428 (100.0)	10,180 (100.0)	655 (100.0)	3,226 (100.0)	38,905 (100.0)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이수 방식은 선택 교과목이 22,432개(57.7%)로 가장 많으며, 필수 교과목은 12,008개(30.9%)임
- 영역별 이수 방식을 보면, 기초문해 영역은 필수 교과목 6,392개(44.6%)와 선택 교과목 6,453개(45.0%)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체험소양 영역 역시 필수 교과목 4,592개(45.1%), 선택 교과목 4,284개(42.1%)로 두 이수 방식이 비슷한 수준임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영역은 선택 이수 비중이 각각 80.7%, 82.4%, 81.5%, 63.2%를 차지함
- 이수 방식에서 선택 교과가 57.7%로 다수를 차지하여 교양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 교육이라는 표준모델 취지와 달리 학생 선택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 경험이 제외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함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방식(수) >



<표 III-13>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방식(수/비율)

이수 방식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필수	6,392(44.6)	316(7.3)	343(7.2)	94(6.6)	4,592(45.1)	84(12.8)	187(5.8)	12,008(30.9)
선택	6,453(45.0)	3,477(80.7)	3,936(82.4)	1,164(81.5)	4,284(42.1)	414(63.2)	2,704(83.8)	22,432(57.7)
무응답	1,487(10.4)	514(11.9)	498(10.4)	170(11.9)	1,304(12.8)	157(24.0)	335(10.4)	4,465(11.5)
전체	14,332 (100.0)	4,307 (100.0)	4,777 (100.0)	1,428 (100.0)	10,180 (100.0)	655 (100.0)	3,226 (100.0)	38,905 (100.0)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이수 시기는 이수 시기 제한이 없는 교과목이 17,647개(45.4%)로 가장 많으며, 1학년에 이수를 권장 교과목은 13,406개(34.5%), 2학년 이상 이수를 권장하는 교과목은 3,338개(8.6%)임
- 영역별 이수 권장시기를 살펴보면, 기초문해 영역과 체험소양 영역은 1학년 이수를

권장하는 교과목이 각각 6,473개(45.2%) 및 4,021개(39.5%)로 가장 많은 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영역은 이수 시기 제한이 없는 교과목이 각각 2,652개(61.6%), 3,094개(64.8%), 826개(57.8%), 349개(53.3%)로 가장 많음

- 이수 권장 시기가 제한 없음인 교과목이 45.4%로 가장 많고, 1학년 권장 교과목 34.5%, 2학년 이상 권장 교과목은 8.6%에 불과해 교양교육이 기초, 심화, 응용으로 연계되는 전 학년 교육과정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권장시기(수) >



<표 III-14>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이수 권장시기(수/비율)

이수 시기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1학년	6,473(45.2)	969(22.5)	945(19.8)	349(24.4)	4,021(39.5)	141(21.5)	508(15.7)	13,406(34.5)
2학년 이상	762(5.3)	235(5.5)	263(5.5)	56(3.9)	1,852(18.2)	9(1.4)	161(5.0)	3,338(8.6)
제한 없음	5,672(39.6)	2,652(61.6)	3,094(64.8)	826(57.8)	3,075(30.2)	349(53.3)	1,979(61.3)	17,647(45.4)
무응답	1,425(9.9)	451(10.5)	475(9.9)	197(13.8)	1,232(12.1)	156(23.8)	578(17.9)	4,514(11.6)
전체	14,332(100.0)	4,307(100.0)	4,777(100.0)	1,428(100.0)	10,180(100.0)	655(100.0)	3,226(100.0)	38,905(100.0)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가 22,937개(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P/F 평가 6,045개(15.5%), 절대평가 5,991개(15.4%) 순으로 나타남
- 영역별 평가방식을 살펴보면,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영역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교과목이 각각 9,779개(68.2%), 3,306개(76.8%), 3,673개(76.9%), 1,087개(76.1%), 356개(54.4%)로 가장 많은 반면, 체험소양 교과목은 P/F로 평가하는 교과목이 5,335개(52.4%)로 가장 많음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평가 방식(수)>



〈표 Ⅲ-15〉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평가 방식(수/비율)

평가 방식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상대평가	9,779(68.2)	3,306(76.8)	3,673(76.9)	1,087(76.1)	2,274(22.3)	356(54.4)	2,462(76.3)	22,937(59.0)
절대평가	2,899(20.2)	511(11.9)	614(12.9)	175(12.3)	1,312(12.9)	110(16.8)	370(11.5)	5,991(15.4)
P/F	276(1.9)	66(1.5)	136(2.8)	30(2.1)	5,335(52.4)	33(5.0)	169(5.2)	6,045(15.5)
무응답	1,378(9.6)	424(9.8)	354(7.4)	136(9.5)	1,259(12.4)	156(23.8)	225(7.0)	3,932(10.1)
전체	14,332 (100.0)	4,307 (100.0)	4,777 (100.0)	1,428 (100.0)	10,180 (100.0)	655 (100.0)	3,226 (100.0)	38,905 (100.0)

- 교양교과목 전체 38,905개의 수업 유형은 대면수업이 31,781개(81.7%)로 가장 많으며, 블렌디드 수업 2,631개(6.8%), 비대면 수업 2,496개(6.4%)로 순으로 구성됨
- 영역별 수업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의 교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수업 유형(수) >



〈표 Ⅲ-16〉 영역별 교양교과목의 수업 유형(수/비율)

수업 유형	기초문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험소양	융복합	기타	전체
대면	11,925(83.2)	3,494(81.1)	3,812(79.8)	1,105(77.4)	8,326(81.8)	551(84.1)	2,568(79.6)	31,781(81.7)
비대면	597(4.2)	374(8.7)	482(10.1)	165(11.6)	431(4.2)	59(9.0)	388(12.0)	2,496(6.4)
블렌디드	1,168(8.1)	115(2.7)	166(3.5)	34(2.4)	1,057(10.4)	16(2.4)	75(2.3)	2,631(6.8)
무응답	642(4.5)	324(7.5)	317(6.6)	124(8.7)	366(3.6)	29(4.4)	195(6.0)	1,997(5.1)
전체	14,332 (100.0)	4,307 (100.0)	4,777 (100.0)	1,428 (100.0)	10,180 (100.0)	655 (100.0)	3,226 (100.0)	38,905 (100.0)

마. 하위영역별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1) 기초문해 하위영역

- 기초문해 영역 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전반적으로 3학점 교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의사소통 I 1,573개(52.7%), 사고 515개(48.9%), 정보문해 1,044개(49.1%), 기초과학·수학 998개(56.1%)로 구성됨. 의사소통 II 영역은 2학점 교과목이 3,171개(49.6%)로 가장 많음
- 강좌 규모는 31~50명 규모의 교과목이 각각 의사소통 I 1,336개(44.7%), 의사소통 II 2,126개(33.3%), 사고 436개(41.4%), 정보문해 796개(37.5%), 기초과학·수학 750개(42.2%)로, 전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이수방식의 경우, 의사소통 I 과 사고 영역은 필수가 각각 1,843개(61.7%)와 544개

(51.6%)로 가장 많은 반면, 기초과학·수학 영역은 선택이 1,472개(8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의사소통Ⅱ의 필수와 선택은 각각 2,828개(44.3%), 2,913개(45.6%), 정보문해의 필수와 선택은 각각 956개(45.0%), 937개(44.1%)로, 두 영역의 이수 방식 간 차이는 크지 않음. 기초과학·수학 영역에서는 선택 이수 방식 비율이 압도적인데, 문·이과 통합 시대에 적절한 고도화된 교과목들을 필수 교과로 개발 혹은 도입하여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필수 이수 방식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수권장 시기는 의사소통 I, 사고, 정보문해 영역에서 1학년 이수 권장 교과목 수·비율이 각각 1,618개(54.2%), 628개(59.6%), 938개(44.1%)로 가장 높음. 의사소통Ⅱ와 기초과학·수학 영역은 이수 시기 제한 없음 교과목 수·비율이 각각 2,760개(43.2%)와 763개(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평가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상대평가가 중심을 이루며, 정보문해 1,668개(78.5%), 사고 754개(71.5%), 기초과학·수학 1,255개(70.6%), 의사소통 I 1,958개(65.6%), 의사소통Ⅱ 4,144개(64.9%)로 구성됨
- 수업 유형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대면 수업이 주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사소통 I 2,668개(89.3%), 의사소통Ⅱ 5,582개(87.4%), 기초과학·수학 1,550개(87.2%)로 구성됨. 한편, 사고 및 정보문해 영역은 블렌디드 수업 비율이 각각 21.3%와 19.7%로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7〉 기초문해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수학 등	
학점 구성	0, 0.5학점	53(1.8)	11(0.2)	11(1.0)	6(0.3)	1(0.1)
	1, 1.5학점	62(2.1)	494(7.7)	22(2.1)	352(16.6)	442(24.9)
	2학점	1,299(43.5)	3,171(49.6)	502(47.6)	723(34.0)	297(16.7)
	3학점	1,573(52.7)	2,680(42.0)	515(48.9)	1,044(49.1)	998(56.1)
	4학점 이상	0(0.0)	5(0.1)	4(0.4)	0(0.0)	34(1.9)
	무응답	0(0.0)	27(0.4)	0(0.0)	0(0.0)	6(0.3)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구분	의사소통 I	의사소통 II	사고	정보문해	기초과학, 수학 등
강좌 규모	1-20명	164(5.5)	1,257(19.7)	110(10.4)	67(3.2)	124(7.0)
	21-30명	893(29.9)	1,673(26.2)	174(16.5)	250(11.8)	301(16.9)
	31-50명	1,336(44.7)	2,126(33.3)	436(41.4)	796(37.5)	750(42.2)
	51-100명	206(6.9)	434(6.8)	249(23.6)	410(19.3)	422(23.7)
	101-200명	10(0.3)	31(0.5)	20(1.9)	90(4.2)	49(2.8)
	201명 이상	5(0.2)	14(0.2)	9(0.9)	82(3.9)	13(0.7)
	무응답	373(12.5)	853(13.4)	56(5.3)	430(20.2)	119(6.7)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이수 방식	필수	1,843(61.7)	2,828(44.3)	544(51.6)	956(45.0)	221(12.4)
	선택	775(25.9)	2,913(45.6)	356(33.8)	937(44.1)	1,472(82.8)
	무응답	369(12.4)	647(10.1)	154(14.6)	232(10.9)	85(4.8)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이수 권장 시기	1학년	1,618(54.2)	2,607(40.8)	628(59.6)	938(44.1)	682(38.4)
	2학년 이상	102(3.4)	357(5.6)	29(2.8)	179(8.4)	95(5.3)
	제한 없음	956(32.0)	2,760(43.2)	333(31.6)	859(40.4)	764(43.0)
	무응답	311(10.4)	664(10.4)	64(6.1)	149(7.0)	237(13.3)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1,958(65.6)	4,144(64.9)	754(71.5)	1,668(78.5)	1,255(70.6)
	절대평가	597(20.0)	1,429(22.4)	236(22.4)	203(9.6)	434(24.4)
	P/F	35(1.2)	104(1.6)	13(1.2)	82(3.9)	42(2.4)
	무응답	397(13.3)	711(11.1)	51(4.8)	172(8.1)	47(2.6)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수업 유형	대면	2,668(89.3)	5,582(87.4)	749(71.1)	1,376(64.8)	1,550(87.2)
	비대면	54(1.8)	170(2.7)	46(4.4)	242(11.4)	85(4.8)
	블렌디드	182(6.1)	274(4.3)	225(21.3)	419(19.7)	68(3.8)
	무응답	83(2.8)	362(5.7)	34(3.2)	88(4.1)	75(4.2)
	전체	2,987(100.0)	6,388(100.0)	1,054(100.0)	2,125(100.0)	1,778(100.0)

2) 자유학예 인문학 하위영역

- 인문학 영역 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문학 595개(58.7%), 예술학 739개(61.4%), 역사학 636개(67.7%), 철학 489개(57.2%)로, 3학점 과목이 가장 많이 구성됨. 종교학은 2학점 교과목이 142개(48.0%)로 가장 많음
- 강좌 규모는 51~100명 규모 강좌가 문학에서 422개(41.6%), 예술학 490개

(40.7%), 역사학 414개(44.1%), 철학 338개(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종교학은 31~50명 규모 강좌가 120개(40.5%)로 가장 많음

- 이수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선택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학 825개(81.4%), 예술학 1,057개(87.9%), 역사학 812개(86.5%), 철학 654개(76.5%)로 나타남. 종교학은 선택 교과목이 129개(43.6%)로 가장 많지만 필수로 운영하는 교과목 또한 93개(31.4%)로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수 권장 시기는 모든 세부 분야에서 이수 시기 제한 없음 교과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평가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상대평가 교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문학 804개(79.3%), 예술학 953개(79.2%), 역사학 767개(81.7%), 철학 653개(76.4%)로 구성됨. 절대평가는 각 세부 분야에서 10.8%~13.1% 범위로 나타났으며, P/F 평가는 0.9%~1.7% 수준임
- 수업 유형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I-18〉 자유학예 인문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학점 구성	0, 0.5학점	3(0.3)	4(0.3)	4(0.4)	0(0.0)	68(23.0)
	1, 1.5학점	29(2.9)	14(1.2)	8(0.9)	12(1.4)	2(0.7)
	2학점	387(38.2)	446(37.1)	291(31.0)	354(41.4)	142(48.0)
	3학점	595(58.7)	739(61.4)	636(67.7)	489(57.2)	84(28.4)
	4학점 이상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강좌 규모	1-20명	30(3.0)	44(3.7)	22(2.3)	27(3.2)	16(5.4)
	21-30명	69(6.8)	98(8.1)	55(5.9)	64(7.5)	13(4.4)
	31-50명	267(26.3)	378(31.4)	315(33.5)	281(32.9)	120(40.5)
	51-100명	422(41.6)	490(40.7)	414(44.1)	338(39.5)	62(20.9)
	101-200명	27(2.7)	52(4.3)	21(2.2)	20(2.3)	5(1.7)
	201명 이상	21(2.1)	17(1.4)	14(1.5)	13(1.5)	3(1.0)
	무응답	178(17.6)	124(10.3)	98(10.4)	112(13.1)	77(26.0)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구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이수 방식	필수	68(6.7)	33(2.7)	39(4.2)	83(9.7)	93(31.4)
	선택	825(81.4)	1,057(87.9)	812(86.5)	654(76.5)	129(43.6)
	무응답	121(11.9)	113(9.4)	88(9.4)	118(13.8)	74(25.0)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이수 권장 시기	1학년	260(25.6)	189(15.7)	213(22.7)	225(26.3)	82(27.7)
	2학년 이상	42(4.1)	54(4.5)	36(3.8)	58(6.8)	45(15.2)
	제한 없음	636(62.7)	814(67.7)	609(64.9)	505(59.1)	88(29.7)
	무응답	76(7.5)	146(12.1)	81(8.6)	67(7.8)	81(27.4)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804(79.3)	953(79.2)	767(81.7)	653(76.4)	129(43.6)
	절대평가	110(10.8)	157(13.1)	116(12.4)	108(12.6)	20(6.8)
	P/F	17(1.7)	20(1.7)	8(0.9)	14(1.6)	7(2.4)
	무응답	83(8.2)	73(6.1)	48(5.1)	80(9.4)	140(47.3)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수업 유형	대면	809(79.8)	994(82.6)	793(84.5)	691(80.8)	207(69.9)
	비대면	108(10.7)	121(10.1)	74(7.9)	60(7.0)	11(3.7)
	블렌디드	32(3.2)	18(1.5)	22(2.3)	38(4.4)	5(1.7)
	무응답	65(6.4)	70(5.8)	50(5.3)	66(7.7)	73(24.7)
	전체	1,014(100.0)	1,203(100.0)	939(100.0)	855(100.0)	296(100.0)

3) 자유학예 사회과학 하위영역

- 사회과학 영역 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3학점 교과목 운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각각 정치학 332개(62.6%), 경제학 234개(65.4%), 사회학 947개(60.3%), 문화학 1,112개(61.7%), 심리학 316개(61.0%)로 구성됨. 다음 순위인 2학점 교과목은 각 세부 분야에서 30.4%~37.1% 범위로 나타났으며, 정치학 189개(35.7%), 경제학 109개(30.4%), 사회학 582개(37.1%), 문화학 648개(36.0%), 심리학 189개(36.5%)임
- 강좌규모는 51~100명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각각 정치학 248개(46.8%), 경제학 152개(42.5%), 사회학 566개(36.1%), 문화학 671개(37.3%), 심리학 183개(35.3%)로 구성됨. 31~50명 규모 강좌는 모든 세부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치학 153개(28.9%), 경제학 115개(32.1%),

사회학 515개(32.8%), 문화학 595개(33.0%), 심리학 173개(33.4%)로 나타남.
1~20명 및 21~3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모든 세부 분야에서 10% 미만의 비율로 운영되며, 101명 이상 대규모 강좌 5% 내외로 확인됨

- 이수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선택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각 정치학 466(87.9%), 경제학 290(81.0%), 사회학 1,243(79.2%), 문화학 1,500(83.3%), 심리학 437(84.4%)로 구성됨
- 이수 권장 시기는 이수 시기 제한 없음 교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각각 정치학 350개(66.0%), 경제학 200개(55.9%), 사회학 987개(62.9%), 문화학 1,208개(67.1%), 심리학 349개(67.4%)로 구성됨. 1학년 이수 권장 교과목은 세부 분야별로 15.3%~24.0% 범위에서 운영되며, 2학년 이상 이수 권장 교과목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4.5%~6.3% 수준임
- 평가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상대평가 교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정치학 428개(80.8%), 경제학 291개(81.3%), 사회학 1,176개(74.9%), 문화학 1,373개(76.2%), 심리학 405개(78.2%)로 구성됨.
- 수업 유형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I-19〉 자유학예 사회과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구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학점 구성	0, 0.5학점	3(0.6)	0(0.0)	2(0.1)	6(0.3)	1(0.2)
	1, 1.5학점	6(1.1)	15(4.2)	39(2.5)	35(1.9)	12(2.3)
	2학점	189(35.7)	109(30.4)	582(37.1)	648(36.0)	189(36.5)
	3학점	332(62.6)	234(65.4)	947(60.3)	1,112(61.7)	316(61.0)
	4학점 이상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강좌 규모	1-20명	18(3.4)	6(1.7)	45(2.9)	80(4.4)	23(4.4)
	21-30명	32(6.0)	23(6.4)	108(6.9)	170(9.4)	42(8.1)
	31-50명	153(28.9)	115(32.1)	515(32.8)	595(33.0)	173(33.4)
	51-100명	248(46.8)	152(42.5)	566(36.1)	671(37.3)	183(35.3)
	101-200명	23(4.3)	10(2.8)	61(3.9)	51(2.8)	20(3.9)
	201명 이상	3(0.6)	4(1.1)	24(1.5)	26(1.4)	10(1.9)
	무응답	53(10.0)	48(13.4)	251(16.0)	208(11.5)	67(12.9)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구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이수 방식	필수	19(3.6)	28(7.8)	165(10.5)	118(6.6)	13(2.5)
	선택	466(87.9)	290(81.0)	1,243(79.2)	1,500(83.3)	437(84.4)
	무응답	45(8.5)	40(11.2)	162(10.3)	183(10.2)	68(13.1)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이수 권장 시기	1학년	105(19.8)	86(24.0)	332(21.1)	343(19.0)	79(15.3)
	2학년 이상	24(4.5)	18(5.0)	82(5.2)	113(6.3)	26(5.0)
	제한 없음	350(66.0)	200(55.9)	987(62.9)	1,208(67.1)	349(67.4)
	무응답	51(9.6)	54(15.1)	169(10.8)	137(7.6)	64(12.4)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428(80.8)	291(81.3)	1,176(74.9)	1,373(76.2)	405(78.2)
	절대평가	53(10.0)	36(10.1)	235(15.0)	234(13.0)	56(10.8)
	P/F	5(0.9)	5(1.4)	53(3.4)	63(3.5)	10(1.9)
	무응답	44(8.3)	26(7.4)	106(6.8)	131(7.3)	47(9.1)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수업 유형	대면	440(83.0)	284(79.3)	1,232(78.5)	1,446(80.3)	410(79.2)
	비대면	36(6.8)	30(8.4)	173(11.0)	180(10.0)	63(12.2)
	블렌디드	15(2.8)	20(5.6)	52(3.3)	60(3.3)	19(3.7)
	무응답	39(7.4)	24(6.7)	113(7.2)	115(6.4)	26(5.0)
	전체	530(100.0)	358(100.0)	1,570(100.0)	1,801(100.0)	518(100.0)

4) 자유학예 자연과학 하위영역

- 자연과학 영역 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3학점 교과목 운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각각 수리과학 138개(77.1%), 물질과학 386개(63.8%), 생명과학 401개(62.3%)로 구성됨. 다음 순위인 2학점 교과목은 수리과학 41개(22.9%), 물질과학 133개(22.0%), 생명과학 221개(34.3%)로 확인됨
- 강좌규모는 51~100 규모의 강좌가 가장 많으며, 각각 수리과학 80개(44.7%), 물질과학 225개(37.2%), 생명과학 312개(48.4%)로 구성됨. 다음 순위로 31~50명 규모 강좌가 많았으며, 각각 수리과학 73개(40.8%), 물질과학 199개(32.9%), 생명과학 175개(27.2%)로 나타남. 1~20명 및 21~3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모든 세부 분야에서 10% 미만으로 운영되며, 101명 이상 대규모 강좌는 0.6%~3.9% 수준임
- 이수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선택 교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수리과학

- 140개(78.2%), 물질과학 502개(83.0%), 생명과학 522개(81.1%)로 구성됨
- 이수 권장 시기는 세부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수리과학은 1학년 이수 권장 교과목이 79개(44.1%)로 가장 많고, 물질과학과 생명과학 분야는 이수 시기 제한 없음 교과목의 비율이 각각 329개(54.4%), 422개(6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2학년 이상 이수 권장 교과목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2.8%~4.3% 수준임
 - 평가 방식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상대평가 교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수리과학 111개(62.0%), 물질과학 469개(77.5%), 생명과학 507개(78.7%)로 구성됨
 - 수업 유형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I-20〉 자유학예 자연과학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학점 구성	0, 0.5학점	0(0.0)	0(0.0)	0(0.0)
	1, 1.5학점	0(0.0)	86(14.2)	22(3.4)
	2학점	41(22.9)	133(22.0)	221(34.3)
	3학점	138(77.1)	386(63.8)	401(62.3)
	4학점 이상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강좌 규모	1-20명	0(0.0)	24(4.0)	14(2.2)
	21-30명	6(3.4)	54(8.9)	24(3.7)
	31-50명	73(40.8)	199(32.9)	175(27.2)
	51-100명	80(44.7)	225(37.2)	312(48.4)
	101-200명	1(0.6)	23(3.8)	25(3.9)
	201명 이상	5(2.8)	19(3.1)	23(3.6)
	무응답	14(7.8)	61(10.1)	71(11.0)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이수 방식	필수	13(7.3)	32(5.3)	49(7.6)
	선택	140(78.2)	502(83.0)	522(81.1)
	무응답	26(14.5)	71(11.7)	73(11.3)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구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이수 권장 시기	1학년	79(44.1)	132(21.8)	138(21.4)
	2학년 이상	5(2.8)	23(3.8)	28(4.3)
	제한 없음	75(41.9)	329(54.4)	422(65.5)
	무응답	20(11.2)	121(20.0)	56(8.7)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평가 방식	상대평가	111(62.0)	469(77.5)	507(78.7)
	절대평가	39(21.8)	83(13.7)	53(8.2)
	P/F	5(2.8)	9(1.5)	16(2.5)
	무응답	24(13.4)	44(7.3)	68(10.6)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수업 유형	대면	152(84.9)	447(73.9)	506(78.6)
	비대면	12(6.7)	62(10.2)	91(14.1)
	블렌디드	5(2.8)	17(2.8)	12(1.9)
	무응답	10(5.6)	79(13.1)	35(5.4)
	전체	179(100.0)	605(100.0)	644(100.0)

5) 체험소양 하위 영역

- 체험소양 영역 교과목의 학점 구성은 대학교시 구현 교과목은 2학점이 355개 (36.0%)로 가장 많았으며, 적응·진로분야는 1학점·1.5학점 교과목이 3,093개 (56.6%)로 과반을 차지함. 정서적 체험은 2학점 교과목이 291개(50.1%), 사회적 체험은 1학점·1.5학점 교과목이 515개(72.3%), 신체적 체험은 2학점 교과목이 656개(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강좌 규모의 경우, 대학교시구현은 31~50명 규모 강좌가 595개(60.3%), 적응·진로 분야는 1~20명 규모 강좌가 2,483개(45.4%)로 가장 많이 운영됨. 정서적 체험은 31~50명 규모 강좌가 221개(38.0%), 사회적 체험은 201명 이상 대규모 강좌가 193개(27.1%), 신체적 체험은 21~30명 규모 강좌가 524개(42.0%)로 확인됨
- 이수 방식의 경우, 대학교시구현과 적응·진로영역은 필수로 운영되는 교과목이 각각 497개(50.4%) 및 3,672개(67.1%)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체험 450개(63.2%), 정서적 체험 462개(79.5%), 신체적 체험 1,054개(84.4%)는 선택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수 권장 시기의 경우, 대학교시구현과 적응·진로영역은 1학년 이수 권장 교과목

이 각각 408개(41.4%), 2,826개(51.7%)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체험 365개(62.8%), 사회적 체험 411개(57.7%), 신체적 체험 840개(67.3%)는 이수 시기 제한 없음 교과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평가 방식의 경우, 정서적 체험과 신체적 체험은 각각 380개(65.4%), 729개(58.4%)로 상대평가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시구현은 263개(26.7%)로 절대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적응·진로 및 사회적 체험은 각각 4,076개(74.5%), 513개(72.1%)로 P/F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수업 유형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Ⅲ-21〉 체험소양 하위 영역별 운영 현황(수/비율)

구분	대학교시구현	대학적응진로	정서적 체험	사회적체험	신체적체험	취업·창업	
학점 구성	0, 0.5학점	278(28.2)	1,362(24.9)	6(1.0)	5(0.7)	1(0.1)	5(0.4)
	1, 1.5학점	297(30.1)	3,093(56.6)	43(7.4)	515(72.3)	385(30.8)	133(11.2)
	2학점	355(36.0)	821(15.0)	291(50.1)	122(17.1)	656(52.5)	585(49.5)
	3학점	56(5.7)	188(3.4)	241(41.5)	68(9.6)	207(16.6)	408(34.5)
	4학점 이상	0(0.0)	1(0.0)	0(0.0)	0(0.0)	0(0.0)	28(2.4)
	무응답	0(0.0)	4(0.1)	0(0.0)	2(0.3)	0(0.0)	24(2.0)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강좌 규모	1-20명	53(5.4)	2,483(45.4)	59(10.2)	122(17.1)	129(10.3)	59(5.0)
	21-30명	92(9.3)	485(8.9)	94(16.2)	24(3.4)	524(42.0)	94(7.9)
	31-50명	595(60.3)	855(15.6)	221(38.0)	105(14.7)	349(27.9)	345(29.2)
	51-100명	123(12.5)	468(8.6)	163(28.1)	197(27.7)	133(10.6)	403(34.1)
	101-200명	20(2.0)	50(0.9)	11(1.9)	19(2.7)	11(0.9)	76(6.4)
	201명 이상	69(7.0)	24(0.4)	3(0.5)	193(27.1)	7(0.6)	38(3.2)
	무응답	34(3.4)	1,104(20.2)	30(5.2)	52(7.3)	96(7.7)	168(14.2)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이수 방식	필수	497(50.4)	3,672(67.1)	32(5.5)	183(25.7)	63(5.0)	145(12.3)
	선택	170(17.2)	1,209(22.1)	462(79.5)	450(63.2)	1,054(84.4)	939(79.4)
	무응답	319(32.4)	588(10.8)	87(15.0)	79(11.1)	132(10.6)	99(8.4)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이수 권장 시기	1학년	408(41.4)	2,826(51.7)	128(22.0)	228(32.0)	269(21.5)	162(13.7)
	2학년 이상	74(7.5)	1,573(28.8)	9(1.5)	13(1.8)	24(1.9)	159(13.4)
	제한 없음	231(23.4)	435(8.0)	365(62.8)	411(57.7)	840(67.3)	793(67.0)
	무응답	273(27.7)	635(11.6)	79(13.6)	60(8.4)	116(9.3)	69(5.8)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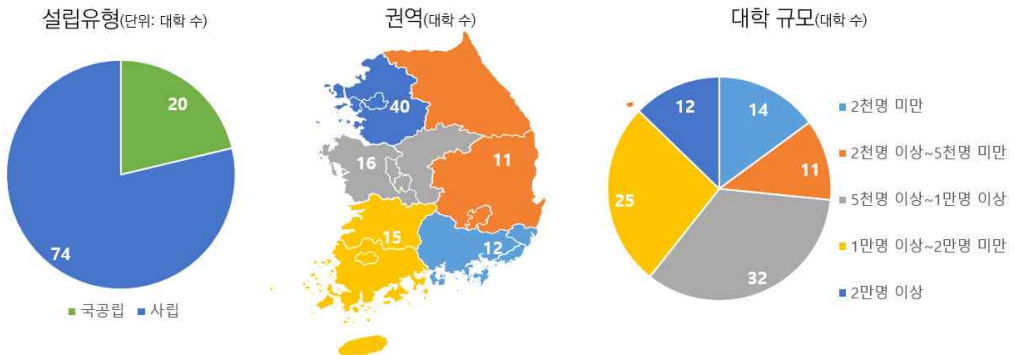
구분		대학교시구현	대학적응진로	정서적 체험	사회적체험	신체적체험	취업·창업
평가 방식	상대평가	199(20.2)	331(6.1)	380(65.4)	102(14.3)	729(58.4)	533(45.1)
	절대평가	263(26.7)	518(9.5)	57(9.8)	44(6.2)	224(17.9)	206(17.4)
	P/F	151(15.3)	4,076(74.5)	64(11.0)	513(72.1)	223(17.9)	308(26.0)
	무응답	373(37.8)	544(9.9)	80(13.8)	53(7.4)	73(5.8)	136(11.5)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수업 유형	대면	884(89.7)	4,204(76.9)	514(88.5)	657(92.3)	1,164(93.2)	903(76.3)
	비대면	55(5.6)	129(2.4)	39(6.7)	33(4.6)	27(2.2)	148(12.5)
	블렌디드	46(4.7)	941(17.2)	4(0.7)	7(1.0)	7(0.6)	52(4.4)
	무응답	1(0.1)	195(3.6)	24(4.1)	15(2.1)	51(4.1)	80(6.8)
	전체	986(100.0)	5,469(100.0)	581(100.0)	712(100.0)	1,249(100.0)	1,183(100.0)

IV.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1. 대학 현황

-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조사에 참여한 대학은 총 94개교이며, 본교 89개교(94.7%), 분교 3개교(3.2%), 캠퍼스 2개교(2.1%)로 구성됨
-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20개교(21.3%), 사립대학은 74개교(78.7%)로 구성됨
- 권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대학이 40개교(42.6%)로 가장 많았고, 대경강원권 대학 11개교(11.7%), 충청권 대학 16개교(17.0%), 호남제주권 대학 15개교(16.0%), 부울경 대학 12개교(12.8%)로 분포함
- 대학교 규모별로는 5천명 이상에서 1만명 미만 대학이 32개교(34.0%)로 가장 많았고, 1만명 이상에서 2만명 미만 대학이 25개교(26.6%), 2천명 미만 대학이 14개교(14.9%) 순으로 확인됨

< 대학 참여 현황 >



<표 IV-1> 대학 현황

내용	빈도	비율
① 본교/분교/캠퍼스 구분		
- 본교	89	94.7
- 분교	3	3.2

내용	빈도	비율
- 캠퍼스	2	2.1
전체	94	100.0
㉔ 설립유형		
- 국공립	20	21.3
- 사립	74	78.7
전체	94	100.0
㉕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0	42.6
-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11	11.7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16	17.0
- 호남제주권(전남, 전북, 광주, 제주)	15	16.0
-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12	12.8
전체	94	100.0
㉖ 대학규모		
- 2천명 미만	14	14.9
-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11	11.7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32	34.0
-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25	26.6
- 2만명 이상	12	12.8
전체	94	100.0

2. 전공자율선택제 구성 및 운영

가. 전공자율선택제 정원 및 충원

- 전공자율선택제 입학 평균 정원은 417.61명, 평균 충원은 369.05명으로 전체 충원률은 91.66%로 확인됨. 유형별로 충원률을 살펴보면, 제1유형의 충원률은 93.30%이고 제2유형은 92.46%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총원·정원 >



<표 IV-2> 전공자율선택제 총원·정원

구분	총원(명)	정원(명)	총원률(%)
자유전공선택제	369.05	417.61	91.66
1유형	169.01	173.97	93.30
2유형	200.04	243.64	9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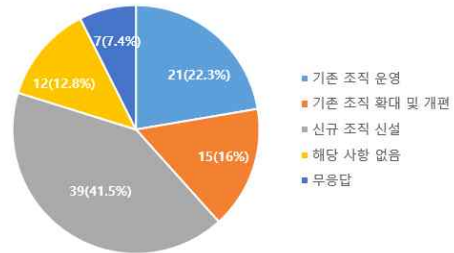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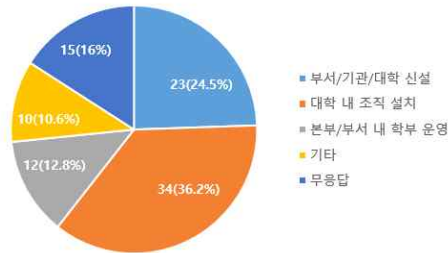
나.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조직

- 94개교를 대상으로 1유형 전담 기관 설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교양대학/학부대학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한 대학이 34개교(36.2%)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의 부서·기관 또는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전담 조직을 구축한 대학은 23개교(24.5%)로 나타남. 대학 본부 또는 부서에서 학부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12개교(12.8%)였으며, 기타 유형 10개교(10.6%), 무응답은 15개교(16.0%)로 확인됨
- 1유형 전담 기관의 설치 방법을 살펴보면, 신규 조직으로 신설한 대학이 39개교(41.5%)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학은 21개교(22.3%),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경우는 15개교(16.0%)로 나타남

< 전담기관 설치 유형 및 방법 >

전담 기관 설치 유형(단위: 대학 수/비율)

전담 기관 설치 방법(단위: 대학 수)



〈표 IV-3〉 1유형 전담기관 설치 유형 및 방법

내용	빈도	비율
① 1유형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기관 설치 유형		
- 별도의 부서, 기관 또는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전담 조직 등 설치	23	24.5
- 교양대학/학부대학 내에 전담 조직 설치	34	36.2
- 대학 본부 기관/부서 내 학부 운영	12	12.8
- 기타	10	10.6
- 무응답	15	16.0
전체	94	100.0
② 1유형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기관 설치 방법		
- 기존조직을 그대로 운영	21	22.3
- 기존조직의 확대 및 개편	15	16.0
- 신규 조직 신설	39	41.5
- 해당사항 없음	12	12.8
- 무응답	7	7.4
전체	94	100.0

- 94개교를 대상으로 2유형 전담 기관 설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단과대학별 전담 조직을 설치한 대학이 22개교(23.4%)로 가장 많았고, 기타, 무응답이 각각 22개교(23.4%), 39개교(41.5%)로 확인됨
- 2유형 전담 기관의 설치 방법을 살펴보면, 신규 조직을 신설한 대학이 23개교(24.5%)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학은 16개교(17.0%),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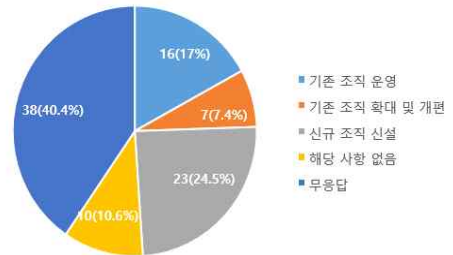
존조직을 확대·개편한 대학은 7개교(7.4%)로 나타남.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은 10개교(10.6%)였으며, 무응답은 38개교(40.4%)임

< 대학 참여 현황 >

전담 기관 설치 유형(단위: 대학 수)



전담 기관 설치 방법(단위: 대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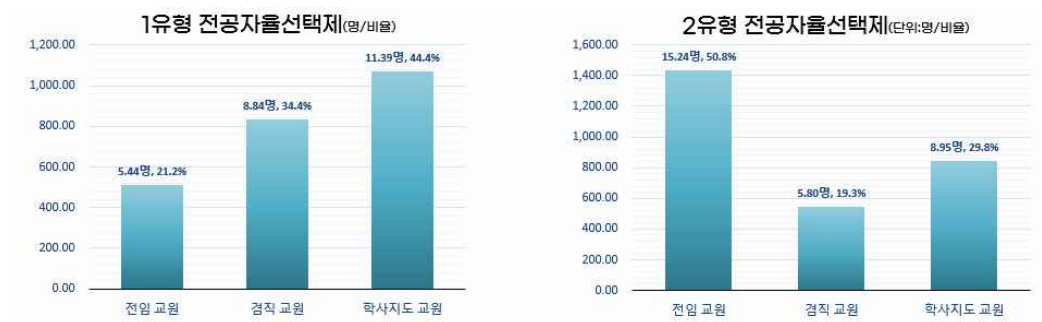
<표 IV-4> 2유형 자유전공선택제 전담 기관 설치 유형 및 방법

내용	빈도	비율
① 2유형 자유전공선택제 전담 기관 설치 유형		
- 계열별 전담 조직 설치	2	2.1
- 단과대학별 전담 조직 설치	22	23.4
-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위원회로 운영	3	3.2
- 교양대학/학부대학 내에 전담 조직 설치	6	6.4
- 기타	22	23.4
- 무응답	39	41.5
전체	94	100.0
② 2유형 자유전공선택제 전담 기관 설치 방법		
- 기존조직을 그대로 운영	16	17.0
- 기존조직의 확대 및 개편	7	7.4
- 신규 조직 신설	23	24.5
- 해당사항 없음	10	10.6
- 무응답	38	40.4
전체	94	100.0

다.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구성원

-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기관의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1유형의 경우 전담 인력 평균은 25.6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임 교원은 평균 5.44명, 겸직 교원은 8.84명, 학사지도 교원은 11.39명으로 구성됨
- 2유형 자유전공선택제의 전담 인력 평균은 29.9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임 교원은 평균 15.24명, 겸직 교원과 학사지도 교원은 각각 평균 5.80명과 8.95명으로 구성됨
- 1유형의 경우, 학사지도 교원이 전임 및 겸직 교원보다 더 많지만, 2유형은 전임 교원이 겸직 및 학사지도 교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1유형, 2유형 전담 교원 >



〈표 IV-5〉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전담 구성원

내용	최소값(명)	최대값(명)	평균(명)
① 1유형 자유전공선택제			
- 전임 교원	0	110	5.44
- 겸직 교원	0	110	8.84
- 학사지도 교원	0	172	11.39
- 소계	0	223	25.67
② 2유형 자유전공선택제			
- 전임 교원	0	409	15.24
- 겸직 교원	0	110	5.80

내용	최소값(명)	최대값(명)	평균(명)
- 학사지도 교원	0	103	8.95
- 소계	0	458	29.99

라. 전공자율선택제 특화 교과 및 비교과

-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학생 대상 특화 교과목은 평균 2.90개이고 2유형 학생 대상 특화 교과목은 평균 3.17개로 2유형 학생 대상 특화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됨
- 특화 교과목 학점 구성을 살펴보면, 1유형 대상 교과목은 대학 평균 5.94학점이고 2유형 대상 교과목은 대학 평균 6.51학점으로, 2유형의 평균 학점이 1유형보다 높은 수준임

< 특화 교과목 수 및 학점 >

전공자율선택제 (1,2유형) 특화 교과



전공자율선택제 (1,2유형) 특화 교과 학점



<표 IV-6>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특화 교과목 및 학점

구분	특화 교과목			학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1유형	1	43	2.90	0	116	5.94
2유형	1	43	3.17	0	116	6.51

- 자유전공선택제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1유형은 평균 3.81회, 2유형은 평균 2.61회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1유형이 2유형에 비해 학생 프로

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IV-7〉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2유형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운영 횟수
1유형	1	19	3.81
2유형	1	20	2.61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 본 조사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① 교양교육과정 구성 현황(131개교 참여), ② 교양교과목 편성 및 운영 현황(125개교 참여), 그리고 ③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94개교 참여)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교양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결과,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 중심 교육과정 구조 속에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대학교육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교양교육 이수 비율은 계열·대학 특성과 무관하게 약 25% 수준에 고착화되어 있어,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다수 대학이 이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선택 교과목이 교양교육과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양교육의 정체성 약화가 우려됨. 따라서 교양교육 이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졸업학점의 35%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양교육을 대학교육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양, 전공, 일반선택의 삼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교육적 책무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유학예교육은 교양기초교육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42.31%), 교양 전체 이수학점의 절대적 규모 부족과 교과목 구성의 정합성 미흡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초학문 기반 자유학예교육 강화와 주제 중심 통합 설계가 요구됨. 구체적으로,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의 교양형 이중설강을 확대하고 인간,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주제 중심 자유학예 교과목을 확충하여 질문 중심의 횡단적 사고와 통합적 이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과목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예 영역 교과목 비율은 27.1%에 불과하여 자유학예교육이 교양교육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인문·사회·자연 분야의 기초학문을 균형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예 교과 비중을 확대하고, 전공기초 성격의 BSM(Basic Science and Mathematics) 교과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는 교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 영역 교과목 비율은 1.7%에 불과하여 자유학예교육을 토대로 한 횡단적 사고와 통합적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최근 교양교육의 흐름과 방향이 교과 편성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소통과 정보문해 등 기초 문해교육을 ‘기능 중심’ 교과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사고 중심’ 교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문·전공 나열식 교과 편성에서 벗어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학문 간 관점을 통합하는 주제 중심 자유학예 교과와 문제 중심 교과를 확대하여 융합적 사고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체험소양 영역은 26.2%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학 적응 및 진로 교과가 14.1%, 취업·창업 교과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는 체험소양교육을 비교과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교기원 표준모델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이와 같은 교과가 1-1.5학점으로 운영되어 비교과 중심 운영을 권고한 표준모델 원칙과 상충됨. 따라서 대학 적응, 진로, 취업, 창업, 단순 체험 활동 성격 교과는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학점인정형 활동으로 이관하고 정규 체험소양 교과목은 인성 및 시민성 함양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교양 교과 개설 시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의 요건을 적용한 교양 적합성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교과 성격에 따라 교양, 일반선택, 비교과로 명확히 구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교육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등 교양 교과 편성의 질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양 교과목 학점 구성은 2-3학점 교과가 78.5%로 다수를 차지하나 1-1.5학점 및 무학점 교과도 21%에 달해 충분한 학문적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과가 존재함. 따라서 교양 교과 최소 학점 기준 설정과 심층 탐구형 수업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1학점 및 무학점 교과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교양 교과는 원칙적으로 2-3학점 이상의 탐구 중심 교과로 운영하여 학문 탐구의 충분한 시간과 성찰 활동이 확보되도록 최소 학점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강좌 규모는 31-50명 31.9%, 51-100명 21.9%로 중대형 강좌 비중이 높아 질문, 토론, 탐구 중심 수업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전형적 교수학습 방식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중대형 강좌 구조 개선과 소규모 토론형 수업 확대가 필요함. 또한 이수 권장 시기가 제한 없음인 교과가 45.4%로 가장 많고, 1학년 권장 교과가 34.5%, 2학년 이상 권장 교과는 8.6%에 불과해 교양교육이 기초, 심화, 응용으로 연계되는 전 학년 교육과정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핵심 교양 영역의 필수 이수 체계 강화와 전 학년 이수 구조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있음.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이 1학년 적응 교육에 한정되지 않도록 고학년 대상 심화 및 융합 교과를 포함한 전 학년 연계 이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전공학부 1학년은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공 관련 과목(또는 이중설강 과목)과 전공 소개 과목(비교과 포함)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1학년 과정에서 교양과목 수강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공 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학점 대비 교양과목 학점 비율은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여 1학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양교육이 기초, 심화, 응용으로 연계되는 전 학년 구조라기보다 1학년 중심의 이수 체계 경향이 강해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신입생 중심 교양교육 운영이 결합될 경우, 고학년 교양교육의 축소 가능성이 커져 교양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약화가 우려됨. 따라서 교양교육을 1학년 교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초, 심화, 응용 단계로 연계되는 전 학년 통합 설계 체계로 전환하고 융합형 자유학예 및 주제 중심 교과를 확대하여 교양교육의 지속성과 심화 교과로서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교양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분석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또는 대학 교양교육 관련 정책 입안/제언을 지원해야 함. 2025년도 교양교육 현황조사 결과와 2023년 교양교육 현황조사 결과의 비교는 2년 사이에 나타난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AI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교양교육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원칙적으로는 사회변화와 고등교육 정책에 더욱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은 전공교육이나, 현실적으로는 전공 학과 중심의 강고한 학사구조로 인해 변화가 쉽지 않음. 이에 따라 대학은 상대적으로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교양교육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교양교육 영역에서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떠한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교육의 질과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진단이 이루어질 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및 교양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교양교육 현황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됨.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National Center로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함.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인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양기초교육의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그러나 전공 학과 중심의 대학 학사구조는 여전히 강고하여 대학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사구조 유연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 종결형 교육 체제는 지속되고 있음. 대학이 소수 엘리트층을 위한 전문교육을 담당하던 시대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강화와 질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제로 판단됨
- 셋째,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율화, 분권화, 다양화,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한국 교육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과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위로부터 강요된 학부제는 시행 15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되돌아갔고, 졸업학점의 30%를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던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3항의 삭제는 전공 중심의 학사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교양교육의 제도 기반을 위축시킴. 「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없던 교양교육의 영토를 전공 학과에 맡겨버린 계기가 됨.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양교육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게 됨. 시

대가 바뀌어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학 내부에서는 전공교육의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로 교양교육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 이는 대학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라는 시각에서 대학교육의 혁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나누어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적임을 보여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반의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교양기초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제안함

- 넷째, 융복합 교육을 위한 대학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시대 변화와 함께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대학 교원은 특정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타 분야를 포괄하는 융합교육을 담당하기에는 한계를 지님. 물론 자신의 학문영역을 넓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일부 연구자가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 사례에 불과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융복합 교육 수요를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융복합 교육을 맡을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이러한 교원 재교육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학문영역을 연결해 온 교양교육의 허브 기관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융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다섯째,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후기 교양교육 또는 대학원 교양교육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창의적 융합인재의 양성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논의되나, 실제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자기 학문 분야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 분야로 확장해 갈 때 융합적 사고와 깊이 있는 통찰, 나아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임. 그런 점에서 여러 학문 분야를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교육은 저학년 때보다는 고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교육적 효과가 커짐. 따라서 기초문해교육은 저학년에 이수하도록 하되,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주제 중심 교양교육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 교양교육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대학원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업 성취를 타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원 교양교육 정책 추진이 요구됨. 이러한 방향에서 도교대학교 고마바 캠퍼스의 후기 교양교육 및 대학원 교육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VI. 참고문헌

- 강창동,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2012.
- 곽미선·강석남·김영아, 「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의 전공 탐색,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양학연구』 33,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5.
- 교육부, 「전공자율선택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모은다」, 2024.10.21.
- 김문희, 「전공자율선택제 전담 교수의 학사지도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31-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5.
- 김선영 외,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 김은아, 「전공자율선택제와 융합교양교육 - 학문적 기반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 『교양교육연구』 19-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 남진숙, 「무전공제 학습자를 위한 융복합 교과목 개발 연구」, 『사고와 표현』 17-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4.
- 손동현 외,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 우선영·서경화, 「전공 미결정 대학생을 위한 자유전공학부 학사지도 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6-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5.
- 유기웅 외,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 윤승준 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 이상임, 『대학교양기초교육 백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 이수정, 「교육학자가 바라본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과제」, 『대학교육』 2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 정승원 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5,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 정연재, 「전공자율선택제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19-1,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 조은원,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전공 탐색 교과목 개발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31-3, 안암교육학회, 2025.
- 최선경·이효숙, 「전공자율선택제에 따른 교양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 통합 자유학예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6,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 하연섭, 『대학전공자율선택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24.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 혁신모델 2차 설명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5.6.25.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 혁신모델 설명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5.4.2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Ⅶ. 부록

1.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131개 대학)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	가천대학교	사립	경기
2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강원
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립	충북
4	가톨릭대학교	사립	경기
5	강남대학교	사립	경기
6	강서대학교	사립	서울
7	건국대학교	사립	서울
8	건국대학교(글로벌)	사립	충북
9	건양대학교	사립	충남
10	경기대학교	사립	경기
11	경남대학교	사립	경남
12	경북대학교	국·공립	대구
13	경상국립대학교	국·공립	경남
14	경성대학교	사립	부산
15	경운대학교	사립	경북
16	경일대학교	사립	경북
17	경희대학교	사립	경기
18	고려대학교	사립	서울
19	공주교육대학교	국·공립	충남
20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공립	강원
21	국립경국대학교	국·공립	경북
22	국립공주대학교	국·공립	충남
23	국립군산대학교	국·공립	전북
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공립	경북
25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공립	전남
26	국립부경대학교	국·공립	부산
27	국립순천대학교	국·공립	전남
2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공립	충북
2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공립	부산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30	국민대학교	사립	서울
31	나사렛대학교	사립	충남
32	남부대학교	사립	광주
33	남서울대학교	사립	충남
34	단국대학교	사립	경기
35	단국대학교(천안)	사립	충남
36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경북
37	대구교육대학교	국·공립	대구
38	대구대학교	사립	경북
39	대구예술대학교	사립	경북
40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세종
41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42	동국대학교	사립	서울
43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사립	경남
44	동명대학교	사립	부산
45	동서대학교	사립	부산
46	동신대학교	사립	전남
47	동양대학교	사립	경북
48	동의대학교	사립	부산
49	루터대학교	사립	경기
50	명지대학교	사립	경기
51	목원대학교	사립	대전
52	배재대학교	사립	대전
53	백석대학교	사립	충남
54	부산교육대학교	국·공립	부산
55	부산대학교	국·공립	부산
56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부산
57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경남
58	삼육대학교	사립	서울
59	상명대학교	사립	서울
60	상명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충남
61	상지대학교	사립	강원
62	서강대학교	사립	서울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63	서경대학교	사립	서울
6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공립	서울
65	서울대학교	국·공립	서울
66	서울신학대학교	사립	경기
67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68	서울한영대학교	사립	서울
69	서원대학교	사립	충북
70	신문대학교	사립	충남
71	성결대학교	사립	경기
72	성균관대학교	사립	서울
73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74	세명대학교	사립	충북
75	세종대학교	사립	서울
76	세한대학교	사립	전남
77	송원대학교	사립	광주
78	수원가톨릭대학교	사립	경기
79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80	순천향대학교	사립	충남
81	신경주대학교	사립	경북
82	신라대학교	사립	부산
83	아신대학교	사립	경기
84	안양대학교	사립	경기
85	영남대학교	사립	경북
86	영산대학교	사립	부산
87	용인대학교	사립	경기
88	우석대학교	사립	전북
89	우송대학교	사립	대전
90	울산대학교	사립	울산
91	원광대학교	사립	전북
92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
93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94	인제대학교	사립	경남
95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인천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96	전남대학교	국·공립	광주
97	전북대학교	국·공립	전북
98	전주교육대학교	국·공립	전북
99	전주대학교	사립	전북
100	제주대학교	국·공립	제주
101	중앙대학교	사립	서울
10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경기
103	중원대학교	사립	충북
104	진주교육대학교	국·공립	경남
105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106	창원대학교	국·공립	경남
107	청운대학교	사립	충남
108	청주대학교	사립	충북
109	초당대학교	사립	전남
110	총신대학교	사립	서울
111	충남대학교	국·공립	대전
112	충북대학교	국·공립	충북
113	칼빈대학교	사립	경기
114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경북
115	한국교원대학교	국·공립	충북
116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서울
117	한국체육대학교	국·공립	서울
118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경기
119	한남대학교	사립	대전
120	한라대학교	사립	강원
121	한림대학교	사립	강원
122	한신대학교	사립	경기
123	한양대학교	사립	서울
124	한양대학교(ERICA)	사립	경기
125	한일장신대학교	사립	전북
126	협성대학교	사립	경기
127	호남대학교	사립	광주
128	호남신학대학교	사립	광주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29	홍익대학교	사립	서울
130	홍익대학교(세종)	사립	세종
131	화성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2.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125개 대학)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	가천대학교	사립	경기
2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강원
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립	충북
4	강남대학교	사립	경기
5	강서대학교	사립	서울
6	건국대학교	사립	서울
7	건국대학교(글로벌)	사립	충북
8	건양대학교	사립	충남
9	경기대학교	사립	경기
10	경남대학교	사립	경남
11	경북대학교	국·공립	대구
12	경상국립대학교	국·공립	경남
13	경성대학교	사립	부산
14	경운대학교	사립	경북
15	경일대학교	사립	경북
16	경희대학교	사립	경기
17	고려대학교	사립	서울
18	공주교육대학교	국·공립	충남
19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공립	강원
20	국립경국대학교	국·공립	경북
21	국립공주대학교	국·공립	충남
22	국립군산대학교	국·공립	전북
23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공립	경북
24	국립부경대학교	국·공립	부산
25	국립순천대학교	국·공립	전남
26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공립	충북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공립	부산
28	국민대학교	사립	서울
29	나사렛대학교	사립	충남
30	남부대학교	사립	광주
31	남서울대학교	사립	충남
32	단국대학교	사립	경기
33	단국대학교(천안)	사립	충남
34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경북
35	대구대학교	사립	경북
36	대구예술대학교	사립	경북
37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세종
38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39	동국대학교	사립	서울
40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사립	경남
41	동명대학교	사립	부산
42	동서대학교	사립	부산
43	동신대학교	사립	전남
44	동양대학교	사립	경북
45	동의대학교	사립	부산
46	루터대학교	사립	경기
47	명지대학교	사립	경기
48	목원대학교	사립	대전
49	배재대학교	사립	대전
50	백석대학교	사립	충남
51	부산교육대학교	국·공립	부산
52	부산대학교	국·공립	부산
53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부산
54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경남
55	삼육대학교	사립	서울
56	상명대학교	사립	서울
57	상명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충남
58	상지대학교	사립	강원
59	서강대학교	사립	서울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60	서경대학교	사립	서울
6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공립	서울
62	서울대학교	국·공립	서울
63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64	서울한영대학교	사립	서울
65	서원대학교	사립	충북
66	선문대학교	사립	충남
67	성결대학교	사립	경기
68	성균관대학교	사립	서울
69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70	세명대학교	사립	충북
71	세종대학교	사립	서울
72	세한대학교	사립	전남
73	송원대학교	사립	광주
74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75	순천향대학교	사립	충남
76	신경주대학교	사립	경북
77	신라대학교	사립	부산
78	아신대학교	사립	경기
79	안양대학교	사립	경기
80	영남대학교	사립	경북
81	영산대학교	사립	부산
82	우석대학교	사립	전북
83	우송대학교	사립	대전
84	울산대학교	사립	울산
85	원광대학교	사립	전북
86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
87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88	인제대학교	사립	경남
89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인천
90	전남대학교	국·공립	광주
91	전북대학교	국·공립	전북
92	전주교육대학교	국·공립	전북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93	전주대학교	사립	전북
94	제주대학교	국·공립	제주
95	중앙대학교	사립	서울
96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경기
97	중원대학교	사립	충북
98	진주교육대학교	국·공립	경남
99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100	창원대학교	국·공립	경남
101	청운대학교	사립	충남
102	청주대학교	사립	충북
103	초당대학교	사립	전남
104	총신대학교	사립	서울
105	충남대학교	국·공립	대전
106	충북대학교	국·공립	충북
107	칼빈대학교	사립	경기
108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경북
109	한국교원대학교	국·공립	충북
11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서울
111	한국체육대학교	국·공립	서울
112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경기
113	한남대학교	사립	대전
114	한라대학교	사립	강원
115	한림대학교	사립	강원
116	한신대학교	사립	경기
117	한양대학교	사립	서울
118	한양대학교(ERICA)	사립	경기
119	한일장신대학교	사립	전북
120	협성대학교	사립	경기
121	호남대학교	사립	광주
122	호남신학대학교	사립	광주
123	홍익대학교	사립	서울
124	홍익대학교(세종)	사립	세종
125	화성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다.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94개 대학)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1	가천대학교	사립	경기
2	가톨릭대학교	사립	경기
3	강남대학교	사립	경기
4	강원대학교	국·공립	강원
5	건국대학교	사립	서울
6	건국대학교(글로벌)	사립	충북
7	경남대학교	사립	경남
8	경북대학교	국·공립	대구
9	경희대학교	사립	경기
10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사립	경기
11	고려대학교	사립	서울
12	고려대학교(세종)	사립	세종
13	고신대학교	사립	부산
14	광신대학교	사립	광주
15	광운대학교	사립	서울
16	광주대학교	사립	광주
17	국립경국대학교	국·공립	경북
18	국립군산대학교	국·공립	전북
19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공립	경북
20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공립	전남
21	국립부경대학교	국·공립	부산
22	국립순천대학교	국·공립	전남
2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공립	충북
24	국민대학교	사립	서울
25	나사렛대학교	사립	충남
26	대구대학교	사립	경북
27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경북
28	대신대학교	사립	경북
29	대전대학교	사립	대전
30	대진대학교	사립	경기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31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사립	경남
32	동신대학교	사립	전남
33	동아대학교	사립	부산
34	동양대학교	사립	경북
35	동의대학교	사립	부산
36	루터대학교	사립	경기
37	명지대학교	사립	경기
38	목원대학교	사립	대전
39	부산교육대학교	국·공립	부산
40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부산
41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경남
42	삼육대학교	사립	서울
43	상명대학교(제2캠퍼스)	사립	충남
44	서경대학교	사립	서울
4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공립	서울
46	서울대학교	국·공립	서울
47	서울시립대학교	국·공립	서울
48	선문대학교	사립	충남
49	성결대학교	사립	경기
50	성균관대학교	사립	서울
51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52	세명대학교	사립	충북
53	세종대학교	사립	서울
54	세한대학교	사립	전남
55	수원가톨릭대학교	사립	경기
56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57	신라대학교	사립	부산
58	아주대학교	사립	경기
59	영남대학교	사립	경북
60	영산대학교	사립	부산
61	우석대학교	사립	전북
62	원광대학교	사립	전북
63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

번호	대학명	설립유형	소재지
64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65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립	인천
66	인하대학교	사립	인천
67	전남대학교	국·공립	광주
68	전주교육대학교	국·공립	전북
69	제주대학교	국·공립	제주
70	조선대학교	사립	광주
71	중앙대학교	사립	서울
72	중원대학교	사립	충북
73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경기
74	창원대학교	국·공립	경남
75	청운대학교	사립	충남
76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서울
77	충북대학교	국·공립	충북
78	평택대학교	사립	경기
79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경북
80	한경국립대학교	국·공립	경기
81	한국공학대학교	사립	경기
8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립	충남
8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공립	서울
84	한국성서대학교	사립	서울
85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서울
86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립	대전
87	한남대학교	사립	대전
88	한동대학교	사립	경북
89	한성대학교	사립	서울
90	한신대학교	사립	경기
91	협성대학교	사립	경기
92	호남대학교	사립	광주
93	호남신학대학교	사립	광주
94	홍익대학교	사립	서울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